추사여, 겨레의 혼불이여

CHUSA, Soul of the People

[上] 추사의 삶과 죽음 [申] 추사의 학문과 예술

신익선 지음 Shin Ik Seon 정미선 번역 Jung Mi Seon



자자 신익선 Shin lk Seon

충남 예산 출생 경희대학교 대학원 현대문학 전공 충남문인협회 회장 역임 저서로 『사람들은 소리를 낸다』 등

• 역자 정미선 Jung Mi Seon

충남대학교 영문학박사, 미국 시 전공 영동대학교 교수 역임 UPLI(국제계관시인연합) 회원

추사여 겨레의 혼불이여

Chusa, Soul of the People

추사여. 겨레의 혼불이여(中)

발 행 2016년 12월 30일

지 은 이 신익선

번 역 정미선

펴 낸 이 김시운

펴 낸 곳 예산문화원

충남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90번길 3(대회리) 전화 041-335-2441

기 획 박세진

편집위원 김문회, 정낙신, 김도회, 김종옥, 류근홍, 류승순 박복규, 박종규, 신익선, 유원숙, 이명선, 이송희 정달순. 한규복, 한상복

행정지원 김상희 박지혜 이다연

전화 042-633-6537

편집인쇄 도서출판 문화의힘 대전 동구 삼성1동 125-6 한밭오피스텔 406호

ⓒ 신익선 2016

ISBN 979-11-959886-1-7

- 이 책의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에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책은 충청남도와 예산군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비매품]

추사여, 겨레의 혼불이여 Chusa, Soul of the People

[中] 추사의 학문과 예술세계

신익선 지음 정미선 번역 1,100년의 예산의 역사에 문화예술의 찬란한 한 페이지를 수놓으신 분을 꼽으라면 당연 추사를 떠올리게 되는 건 비단 예산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추사를 아는 모든 사람은 예산 하면 추사를 떠올리고 애국지사 하면 매헌 윤봉길을 떠올리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깁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추사체와 세한도라는 문화적 컨텐츠를 활용해 18세기 동북아 학자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켰듯이 추사의 정신문화를 세계인과 공감하고자 지난 2015년 예산문화원에서 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삶과 학문·사상 그리고 예술의 문화적 정신세계를 서사시로 역어 시적인 운율을 붙이고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2015년 지역문화특성화사업을 통해 『추사여 겨레의 혼불이여』(상) 라는 추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영문서사시집을 발간하였고 올해 역시 2016년 지역문화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사여 겨레의 혼불이여』(중) 추사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영문 서사시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추사여, 겨레의 혼불이여』 중권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해 동통유라 일컫게 된 학문과 예술의 업적을 토대로 신익선 선생 님의 신고辛苦의 필력으로 시화되었습니다. 추사 선생님의 모 든 것을 두 권의 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추사의 단면만이라도 세계인들과 공감해 보자는 것이 이번 발간사업의 취지이기에 시적인 표현의 특성상 다소 함축적이고, 동양의 시적 감성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감수성 전달이 다소 약하더라도 추사의 사상과 예술성의 맥락은 분명히 전달되리라 봅니다.

동서양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라는 코드로 18세기 문화적 공 감대를 실현시켰던 추사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시로 표현하고 다시 영문으로 번역하여 발간된 이 책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세 계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공감대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으 면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큰 도움을 주신 안희정 충남 지사님과 황선봉 예산군수님, 권국상 예산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충청남도와 예산군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2016년 12월 30일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 시 운

It is not controversial Chusa added a new page of the glorious culture and arts in history of 1,100 year old Yesan. Yesan reminds everyone who knows Chusa of Chusa and a patriot is associated with Maeheon Yoon Bonggil.

As Chusa used cultural content such as Chusache and Sehando to develop a bond of sympathy with the scholars of Northeast Asia in the 18th century, as Yesan Cultural Institute published two poetry books that show Chusa's life, philosophy, literature and arts and cultural mind to share his spiritual culture. Volume one published in 2015 under the title, Chusa, Soul of the People deals with his life and death and volume two in 2016 covers his learning, literature and arts. Both of them are designed as part of the regional culture specialization project and translated into English as epic poetry.

Volume two, Chusa, Soul of the People comes from poet Shin Ik Seon's hard work, and the poet turns the achievements of literature and arts of Chusa called a superb Confucian scholar with executive ability into poems. It is nonsense to try to put all of Chusa own in two books, yet the fact that more people can tune in to Chusa through these books has a great significance. Therefore, although expressions are implicit due to the poetic nature, and poetic sensitivity is rather weak in translating owing to the difference in culture between East and West, Chusa's thoughts and arts will be considered to get clearly across,

I hope this book in Korean and English, covering Chusa's life that integrated East and West through artistic culture to form cultural sympathy in 18th century gives an opportunity for the people living in the 21st century to feel sympathy as a human being. Also, I am deeply grateful to Ahn Hee Jung, Chungcheongnam-do Governor, Hwang Sun Bong, Yesan Governor, Kwon Geuk Sang, Chairman of Congress Councilors and to all the people concerned for their help, supporting this project.

December, 2016

Kim Si Woon, Doctor of Engineering Director of Yesan Cultural Institute 추사 선생은 먼 시대 인물이 아니다. 불과 이백삼십여 년 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정치가로 입신하여 두 차례 유배를 당하셨으나 특유의 기품으로 추사체를 정립하셨다. 이 글은 선생의학문과 예술세계의 극히 일부분을 살펴 쓴 시집이다. 천단海頭하기 그지없다. 추사 예술세계의 특장은 학예일치學藝一致의 예술관과 법고창신法古創新의 기저에 다져진 추사의 고매한 인격에 있다. 추사의 경이로운 예술일체는 각고의 노력과 함께 추사의 고결한 인격이 빚어낸 산물이라는 점이다. 가혹한 역경과 환란에 결코 굴하지 않은 투혼의 결과이기도 하다. 추사, 진실로추사야말로 그 누구와도 비견키 어려운 참된 인격자, 참된 예술 인으로서의 선경의 모본, 그 자체이다.

현재 경기도 과천이나 제주도 대정마을, 고향 예산에서 추사를 기리는 행사가 다채롭다. 세 곳 모두 웅장한 박물관이 서 있다. 특히 추사에 관한 작품집들이 무수히 많다. 면구하다. 예산, 나의 향리에서 늘 뵙는 선생의 생애를 경홀히 지나쳤다는 생각이다. 부족한 이 글은 그에의 결과물이다. 이 시집을 쓰면서 절감한 사실이 있다.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선생처럼 시, 서, 화, 금석문, 경학, 고증학, 불교학, 감상, 등등에 있어 당대에 이미청나라를 압도하고 학예의 최고경지를 개척한 예술인은 없다는

심혼의 공명이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그러한 일대의 통유通儒, 추사의 삶과 예술과 사상을 살펴 시편으로 쓰기란 두려운 일이다. 나같이 무른 독필禿筆이 어찌 한민족 오천년 역사에서 최고 걸출한 예술인을 조망한단 말인가. 심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동향하 아닌가. 오로지 이에 빗대어떨며 펜을 잡는다. 고택 근처에 주택을 마련하곤 수없이 고택엘간다. 갈 때마다 선생 묘소에 절 올린다. 그건 수시로 내가 공소께 올리는 제사다. 무릎 꿇고 삼가 절 올리며 반야般若의 업을 닦으신 추사 예술혼의 분기奮起를 빌고 빌면서 한 없이 미흡한 이시편들을 썼다.

원컨대 선생이시여, 부디 시간층위 뚫고 무덤에서 일어나시라. 예전처럼 다시 붓 잡으시고 꼿꼿한 지조와 기개, 불요불굴의 정신력과 불타는 예술혼으로 오시라. 오셔서 영혼의 새벽 등불 밝혀 혼돈의 이 나라와 아름다운 우리 예산을 비추시라.

추사여, 겨레의 혼불이시여!

2016년 12월 30일 寶秋 신익선 識 Chusa was not a remote ancestor. Only about 230 years ago, he was born in Yesan, Chungnam, and established Chusache, original calligraphic style with a creative disposition even after exiled twice as a politician. This book is poetical works which present a fraction of his study and art world. Hence, it is far from enough to understand his world. Chusa's noble character was a strong point, on which his artistic perspective, 'hakyeilchi'(學藝一致) meaning that literature and art coincide and 'bubgochangshin'(法古創新) emphasizing that 'the new things come from the past' were based. His wondrous art works were put by a great deal of effort and his high character all together. Also, they resulted from severe hardship and fighting spirit not to give in. Chusa, he is a man of true character beyond compare and a seed tree himself in a fairyland as a true artist.

Nowadays, a variety of events in honor of Chusa are held in Gwacheon of Gyeonggi Province, Daejeong Village on Jeju Island and his hometown Yesan. All the cities have a grand museum with countless works, especially including Chusa's. I am ashamed, That's because I had passed by it carelessly though I met the teacher's life in my hometown Yesan all the time. I regretted my own foolishness, so I wrote this book, such as it was, to make up for it. While writing poems, I realize a fact keenly.

Chusa was the first person in Korea history who overwhelmed

Qing's scholars of his time in poetry, paintings, calligraphy, epigraph, Confucian classics, documental archaeology, Buddhism, appreciation, and so on and attained completeness of literature and art with which my heart resonated. It was such a wonderful thing,

I was afraid of composing poems about his life and thoughts after reviewing the greatest Confucian scholar with shrewd and practical knowledge of the day. How dare I, like a weak stubby brush, write the poems for the most prominent artist in Korean history of 5000 years? I felt deeply ashamed, but didn't we come from the same place? Only speaking at it, I took up my pen, trembling. After getting a house near Chusa's birthplace, I went there many times. Each time I went, I bowed deeply to his tomb. It means my memorial service for him, I respectfully knelt to bow and offered up my prayers for his artistic spirit that had attained the highest and purest state of wisdom to spurt. With the prayers, I wrote this poetry book even thought it was far from perfect.

Get up in the tomb transcending time, O Chusa. Come to take up the brush again as it was before with unyieldingly noble beliefs and spirit, invincible willpower, and burning artistic spirit. Come to light the day-break lamp of the soul and shine the light on our country in a chaotic state and beautiful Yesan. Soul of people, Chusa!

December 30, 2016

Shin Ik Seon

2 ··· 발간사 Publishing message ··· 4

6 ··· 머리말 Preface ··· 8

제1장 조선의 바다 Sea of Joseon

20 ··· 조선의 바다 Sea of Joseon ··· 21

22 ··· 유월 볼우물 June Dimple ··· 23

24 ··· 추사 초상화 Chusa's Portrait ··· 25

26 ··· 고택 안방의 대화록 Dialogue in the Master Bedroom of the Old Family

Home ... 27

28 ··· 승, 그리고 포효 Horseback Riding, and Roar ··· 29

30 ··· 석정 두레박 Bucket of the Stone Well ··· 31

32 ··· 화암사의 말 Hwaamsa Temple's Words ··· 33

34 ··· 입춘첩 불기둥 폭풍 Spring Slips(Ipchuncheob) to Be Fire Pillars ··· 35

36 ··· 스승 박제가 Master Park Jega ··· 37

38 ··· 김노경, 추사의 학문탐구에 Kim Nogyeong, Admonish Chusa's Useless

대하여 책망하다 Learning ··· 39

40 ··· 고택 제비집 A Swallow's Nest in the Old Family Home ··· 41

44 ··· 오전에 부르는 이름 The Name Called in the Morning ··· 45
46 ··· 성령 풀밭이여 The Meadow with the Holy Spirit ··· 47
48 ··· 화암사 요사체 누마루 Numaru of Hwaamsa Yosachae ··· 49
50 ··· 석년 A Stone Clock ··· 51
52 ··· 내 거울을 닦다 Rub my Mirror ··· 53
54 ··· 생부 김노경, 여덟 살 추사가 쓴 Birth Father Reads a Letter Chusa, aged 8, Wrote ··· 55
편지를 읽다
56 ··· 고택 모란 Peone in his Home Garden ··· 57
58 ··· 달마중 입술 Lips for Meeting the Moon ··· 59

62 ··· 열일곱 살의 웅지 Seventeen Year Old Boy's Great Ambition ··· 63

42 ··· 새벽 등불의 말 Lamplight's Remark at Dawn ··· 43

60 ··· 고택 조롱박 Old Family Home's Gourds ··· 61

64 ··· 신암 고을 낮달 Day Moon ··· 65

제2장 조선의 토방 Tobang of Joseon

68 ··· 조선의 토방 Tobang of Joseon ··· 69

70 ··· 추사의 문자향과 서권기 Scented Words and Books with Energy ··· 71

72 ··· 안시성에서 At the Walled Fortress Ansi ··· 73

74 ··· 연모에 대한 변명 Excuse for Love ··· 76

78 ··· 완당 Wandang ··· 79

80 ··· 필담서 Conversation by Writing ··· 81

82 ··· 주학년의 추사전별도 Jhu Hanonian Paints Farewell Party for Chusa ··· 83

84 ··· 추사, 조용진 입연 전별시를 읽다 Chusa's Farewell Poem for Jo yongjin to Go to Beijing ··· 85

86 ··· 시암 Siam ··· 87

88 ··· 옹수곤에게 To Weng Shukun ··· 89

90 · · · 이연의 길에서 만난 섭지선 Fateful Encounter with Ye Zhishen · · · 91

92 ··· 청나라 학자들과의 교류 Academin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Qing ··· 93

94 ··· 자하 송별시의 달빛 A Farewell Poem for Jaha in the Moonlight ··· 95

96 ··· 추사의 상투 Chusa's Topnot ··· 97

98 ··· 조선의 유마거사 Vimalakirti Grhapati of Joseon ··· 99

100 … 신라 진흥왕 순수비 고증	Historical Research on the Stele Commemorating
	King Jinheung's Tour · · · 101
102 … 추사, 무장사비 파편을 찾아	Chusa's Impression on Newly found Fragments of
글씨를 쓰다	Mujangsa Stele · · · 103
104 … 남산에 올라가 통곡하다	Wail on Namsan Mount · · · 105
106 … 추사, 화풍의 법을 논하다	Chusa, Discuss the Painting Styles · · · 107
108 ··· 추사의 시·서·화에 대한 단상들	Fragmentary Thoughts on Poetry, Calligraphy,
	Painting ··· 109
110 … 완당바람	Wandang Wind ··· 111
112 … 추사 감상의 한 단면	Chusa as an Art Critic · · · 113
114 … 천축고선생댁	Indian Master Ko's House ··· 115
116 … 추사의 불이선란도와 난맹첩	Chusa's Painting 'Buriseonllando' and Sketchbook
	'Nanmaengcheop' ··· 117

제3장 조선의 회오리바람 Whirlwind in Joseon

120 ··· 조선의 회오리바람 Whirlwind in Joseon ··· 121

122 ··· 해인사 일주문에서 At the Gate Iljumun of Haeinsa ··· 123

124 ··· 추사, 합천의 가야산 해인사 Chusa, Write to Commemorate the

중건 상량문을 쓰다 Reconstruction of Haeinsa's Framework

in Mountain Gaya ··· 130

131 ··· 추사, 그리고 추사의 불교학 Chusa, and his Buddhist Studies ··· 132

133 ··· 정조경이 추사에게 드리는 부언 Cheng Zuqing Adds A Remark for Chusa ··· 135

136 ··· 오석산 바위에 새긴 글씨, 시경 Character 'Sigyeong' Carved on Rock of

Oseksan ··· 137

138 ··· 오승량의 행서대련 Wu Songliang's Semicursive Style

on Hanging Scroll ··· 139

140 ··· 후기 Postscript ··· 141

142 ··· 고순에게 준 대런 Present a Hangin Scroll to Gu Chun ··· 143

144 … 과지초당 연못의 충고 Advice Given by Gwajichodang Pond · · · 145 146 … 추사 금석학의 경전 Chusa's Epigraphic Bible · · · 147 148 … 해란서옥 이집 The Second Poetry Book Haeranseook · · · 149 150 … 청나라, 등전밀의 서신 Letter from Deng Chuanmi of Qing ··· 151 152 … 눌인 조광진을 만나다 An Encounter with Nulin Jo Kwangjin · · · 153 154 … 추사, 다산의 편지 받다 The Letter from Dasan · · · 155 156 … 스승 완원이 보낸 편지문과 황청경해 A Letter and Books 'Huang-qing-jing-jie' from Master Ruan Yuan · · · 157 158 … 추사의 제자들 Chusa's Disciples · · · 159 160 ··· 추사의 웃음 Chusa's Laughter ··· 161 162 … 섭지선의 편지 A Letter from Ye Zhishen · · · 163 164 … 고택의 꿈 물때 Water Deposit in Old Family House's Dream ··· 165 166 ··· 노완 Nohwan ··· 167

제4장 조선의 자궁 Womb of Joseon

170 ··· 조선의 자궁 Womb of Joseon ··· 171

172 ··· 귤중옥 A Prison Enclosed by the Orange Trees ··· 173

174 ··· 남원을 지나며 그린 모질도 Paint 'Mojildo' Passing by Namwon ··· 175

176 ··· 탱자나무 가시울타리의 말 Orange Thorn Fence's Words ··· 177

178 ··· 대정현 벙어리일망정 Even the Dumb Living in Daejeonghyun ··· 179

180 ··· 서까래 지팡이 삼아 Leaning on a Rafter instead of a Cane ··· 181

182 ··· 몽당붓의 흥회 Spontaneous Emotional Outburst of a

Stubby Brush · · · 183

184 ··· 우록정 Urokijeong ··· 185

186 ··· 저승재회를 소망하오며 Wishing to Meet in the Afterlife ··· 187

188 ··· 통곡의 제문 A Wailing Funeral Oration ··· 191

192 ··· 수의를 깁다 Sew a Shroud ··· 193

194 ··· 바다 울음 Tears of the Sea ··· 195

196 ··· 제주바다 Jeju Sea ··· 197

198 ··· 백파논변 A Debate with Packpa ··· 199

200 ··· 벗, 초의선사 대정에 오다 Friend Choui Seonsa Drops by in Daejeong ··· 201

202 ··· 화암사 무량수각과 시경루 Signboards of Hwaamsa Muryangsugak

현판을 말하다 and Sigveongnu ··· 203

204 ··· 추사 꿈에 받은 밥상 A Meal given in a Dream ··· 205

206 ··· 토말 The End of the Earth ··· 207

208 ··· 빛을 꺼내다 Take Out Light ··· 209

210 ··· 세한도 Sehando ··· 211

212 ··· 머무르고 싶은 곳, 태허 Great Void, the Place I Want to Stay ··· 213

214 ··· 모슬포 밤 파도에게 To Night Waves of Port Moseulpo ··· 215

216 ··· 백파대율사 비문 Baekpayulsa Stele ··· 217

218 ··· 이상적, 거푸 대정에 책들을 보내오다 Lee Sangjeok, Send Books Successively

for Chusa in Daejeong · · · 219

220 ··· 추사의 장서, 깨어나다 Chusa's Library Wakes Up ··· 221

222 ··· 잠오 The Maxim of Chusa ··· 223

224 ··· 추사의 마지막 작품 Chusa's Last Work ··· 225

226 ··· 용궁리 백송 Yonggungri White Pine ··· 227

228 ··· 추사 오솔길 Chusa's Path ··· 229

230 ··· 지금도 떨다, 봉은사 판전 The Signboard of Bongeunsa Hall Still

Trembles ··· 231

232 ··· 아들 상우에게 To Son Sangwoo ··· 233

234 ··· 무덤의 생애 The Life of the Dead ··· 235

236 ··· 유택 세한송 A Pine Tree by a Grave in the Biting Cold ··· 237



제1장 조선의 바다

Sea of Joseon

조선의 바다

새날 새 아침이다 조선의 바다여 갯바위 부딪치는 파도알갱이가 낳는 새 빛이 목숨둥우리 수평선 너머 생명 산이자 불 바위의 모태인 물안개를 낸다 꿈은 먼지로 사라질 것이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들숨과 날숨, 눈꺼풀의 언어들, 일순 피어나는 용광로 속 시뻘건 쇳물의 포옹들이 피 끓는 네 심장고동이다 영원히 가슴 치는 조선의 바다여!

Sea of Joseon

It's a new morning of a new day, Sea of Joseon.

The new light from the breaking waves

Over the horizon of a life basket

Creates mist, the matrix of the life forest and fire rock

The dream will turn to dust, yet

Day by day, hour by hour, inhalation and exhalation, languages of eyelids,

The momentary hugs of red molten metal in a furnace are

Your boiling heartbeat,

Sea of Joseon that heart-beats forever!

유월볼우물

신암 용산 숲속을 빠져나온 산바람이 가늘고 긴 손가락 뻗어 대야 물에 몸 씻기는 갓난아이 솜털 시간에 머문다 봄꽃 진 수선화 뿌리 달구는 남녘의 열기가 훅, 더운 입김 내쏘며 온몸 사루는 아침

이제, 이제부터, 나는 뜨거운 이름이 될 것이다

찰랑찰랑 물장구치는 은 물살이 대야에서 튄 몇 방울 물에 몸 불어나 터질 듯 젖기슴 탱탱한 구렁목 유월보리에 확, 불붙는 핏빛 숨 가쁨일까 영혼 달궈 불사랑 켜는 유월 볼우물

^{*} 용산: 예산군 신암 용궁리 추사고택의 뒷산 이름. 붓글씨와 전각에 능했던 영조대왕의 부마이자 추사의 증조부이신 월성위 김한신의 향저로 유명한 추사고택이 있고 이곳에서 추사가 탄생하였 다.

^{*} 유월보리 : 1786년(병오년) 6월 3일, 추사 출생을 뜻함.

June Dimple

The wind getting out of Yongsan in Sinam.

Stretches its spidery fingers and

Stays for downy hair time of the baby in a bathtub

Sudden heat from southern regions

Warms the root of daffodils whose spring flowers fell off

Morning burning itself out with hot breath.

Now, from now on, I will become a hot name.

Silver water rippling

Swells with splashing water from a basin and

For two pins I'd suckle the ample bosom to June barley in Gooreongmok,

Is it shortness of breath that catches fire in blood-red?

June Dimple lighting the fire of love with heated souls

^{*} June barley: Chusa's birthday is the 3rd day of 6th lunar month in 1786, and June barley means his birth.

추사 초상화

북극성인가 오직 형형한 눈빛만 살아 빛난다

눈물진 조선의 숨결이 얼어붙는다 단아하게 빚은 콧날이 화엄경에 서성이는 번뇌 해탈의 시간도 일시 얼다가 백송나무 빈 공간으로 숨어드는 초가을 새벽녘 오사모爲如따와 쌍학雙鶴 흉배 관복 벗고 신선인 양 초립 쓰고 허름한 도포차림으로 고개 돌려 바라보는 모습도 얼고 있다 삼동에야 몸속 피돌기 뭉쳐내는 짙푸른 청대 이파리의 꼿꼿한 청절인가 혈관 치는 지엄한 자존 마구 솟구쳐 수 없이 쓰러져 속울음 울 때마다 화선지 뚫는 붓, 깊디깊은 자기투혼, 불의 붓을 보며

영원성인가 오직 형형한 눈빛만 살아 빛난다

Chusa's Portrait

Are they the North Star? Only his penetrating eyes shine.

The breath of Joseon in tears is freezing.

Time for ending all anguish and attaining Nirvana

Of his graceful nose hanging around Avatamska Sutra is temporarily freezing, too

Dawn in early autumn steals into Lacebark pine tree holes

Taking off an official hat and robes embroidered with two cranes

In shabby attire with a straw hat like a hermit

The figure turning to look is also freezing.

Coagulating circulating blood only in the cold winter

Is it the unwavering integrity of deep blue bamboo blades?

Every time the strict self-esteem beating the blood vessel violently surges and

Falls down and cries soundlessly, the brush penetrates onto the drawing paper

He looks at the fire brush, his deep and deep fighting spirit

Are they perpetuality? Only his penetrating eyes shine.

고택 안방의 대화록

- 생부 김노경과 생모 기계유씨의 대화

- 부인, 강 나루터 앞 용궁리 초입, 주막집 총각 이야길 아오? 거나 한 달간을 곡기 대신에 시문詩文 뒤섞인 막걸리 먹으며 밤낮으로 시를 논하다 운명하였다 하오. 시문이야 격물치지格物致知에 닿는 것, 부인, 이 아이, 정희는 백가서百家書를 가르칠 것이나 시, 서, 화를 논함에 있어 격론과 파격에 휘말려 도를 잃고 치우치지 않도록 산국山作. 그 푸르른 생명으로 살펴야 할 것이오

- 게셔, 월성위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윗대 선조들 시선이 여기 이 아랫목에 누워 잠자는 우리 큰 아이 정희를 주시하고 계시지요. 걱정 안 해요. 정희의 학 문과 예술은 하늘에서 전수받아 길이 청사壽史에 새기게 될 거예요

어깨 곧추세워 키우는 예산 근육질의 초저녁 한 무리가 삐쭉 솟은 수숫대 우듬지에 초승달 달고는 가만가만 귀 기울이네. 고택 안방의 불 자취!

^{*}게셔: '그대'의 시적인 표현으로 18세기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부부 호칭 시 사용되던 언어이다.

^{*} 격물치지格物致知: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참 지식에 통달하는 것.

Dialogue in the Master Bedroom of the Old Family Home

Dialogue between Birth Father Kim Nogyeong and Birth Mother
 Gigyae Yu

— Honey, have you ever heard the story of young man living in a tavern at the Yonggungri entrance in front of the river pier? He is said to have died while debating poems, drinking only makeeolli day and night, not eating meals for about a month. To study poetry and prose is to gain knowledge through studying things. Honey, my kid Jeonghui will be taught with the books of various philosophers and scholars. However, in debating poetry, painting, and calligraphy, he should be brought up like fresh green Kuril bamboo, not to be unbalanced without basic principles, while caught up in heated argument and exception.

Dear, all the ancestors including Wolsungwee grandfather watch the eldest son of our family Jeonghui, lying on the warm spot. I don't care. As Jeonghui is a natural-born scholar and artist, he will live long in history.

Building the muscles with its shoulders shoulders straightened, a group of early evenings

Hanging a crescent on the tip of sorghum straw that sticks up Quietly listen in on them. The fire trace of the old family home

승乘, 그리고 포효

- 네 살, 추사 처음 붓을 잡다

초원 가로질러 치달리는 야생마의 말갈기인가 짓쳐들어오는 오월 황사에 막 꽃잎 터트린 봄꽃이 눈부시다, 강보에 쌓여 젖 무는 순간, 바로 그 순간, 도저히 자력으로 내려올 수 없는 말에 올라타다 선각자의 초원은 쓰라려 수 없이 핏줄기 터지는 험로, 미지의 종착역에서 길고 긴 기적이 울다 망나니가 부릅뜬 눈 부라리고 덤벼드는 독충의 땅, 여기가 어딘지 가늠 못하는 동굴의 이끼 낀 작고 큰 바위 곁에서 허기진 채로 실신하면서도 부여잡은 고삐가 깊은 밤길 걷어차며 재차 말에 올라타 말갈기 치며 가시벌판 달리는 사내의 저 포효!

^{*} 선각자: 추사는 처음 붓 잡을 때부터 올곧고 다부졌다고 전한다. 학자들은 추사야말로 조선조 전 환기를 이끌어온 신지식인新城職人이며 신학문과 사상을 수용하여 낡고 노쇠한 조선조의 구문화 체 제를 탈피하여 신문화의 전개를 가능케 한 선각자라고 말한다.

Horseback Riding, and Roar

- Aged 4, Chusa Holds a Brush for the First Time

Is it the mane of a wild horse running fast across the field?

The spring flower trees that just sprout in raging May yellow sand

Dazzle. When a baby sucks in swaddling clothes

At the very moment, he rides on the horse he can't get off for himself

The meadow for pioneers is a rough place where skins chafe to break blood vessels

The ever so long whistle blows from the unknown last stop.

The land for poisonous insects where an executioner attacks with the angry eyes.

Among the great and small mossy rocks in the unknown cave

Even when he faints with hunger, a rein he holds hard and

Kicking the night journey, he rides a horse again

The roar of the man who runs in the thorn field, hitting horse's mane!

석정 두레박

우물 악수다. 어둠이 내미는 손과 나누는 무하유다 그 순간 고갤 흔들며 많은 날들이 지나갔다 미지의 바다에서 낙태한 난자의 매운 울부짖음과 여린 살갗 견디지 못하는 실핏줄들이 두 번 다시 가지 못하는 우물의 길들을 설명해 줬다 결코 어둠에 지지 않겠다고 걸어왔으나 발자국마다 어둠 아닌 게 없는 회한에 갈증, 왜 없겠는가 광기어린 혈관의 울분, 왜 없겠는가 신암 추사고택 석정이 길어 올리는 몸속에서 어미닭 날개에 숨어든 구렁목 병아리가 눈을 깜박거린다, 삐악 눈물 물고 삐악, 어둠 깨우는 소리를 듣는 동녘 날개깃에 여명물 퍼 닦는 새벽녘의 석정 두레박

*무하유:아무것도 없는 세계.

^{*} 구렁목 : 추사 출생지인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를 일명 '구렁목'이라 한다.

Bucket of the Stone Well

It's a handshake with the well. It's a completely natural world with nothing artificial to share with the hand that darkness extends

At that moment, lots of days passed, shaking its head

In the unknown sea, the keen wail of an aborted ovule and

Capillaries impatient of tender skin

Show the way of the well that never goes back.

Not to be beaten by the darkness, I came on foot, yet

For remorse that there was darkness at every step, how can I not feel thirsty?

How can I not have mad resentment in the blood?

In the body from which the stone well of Chusa's old family home in Sinam draws

A Gooreongmok chick diving under hen's wing blinks its eyes, 'Peep' In tears, 'Peep' at a sound of rousing the dark

The bucket of the stone well that scoops up daybreak water with flight feathers of the east at dawn

화암사의 말

- 추사와 화암사의 만남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탁발이 영원이라, 평생 나무그늘을 집 삼아 청맹과니 목탁이 되라 평생 피땀 흘려 묵언정진을 하라

^{*}화암사花廠寺: 백제 고찰. 이 절은 추사의 증조부인 김한신이 영조의 부마가 되었을 때 별사전으로 분급된 일대의 전토에 포함되어 일문에 세습되었다. 추사와 화암사의 만남은 운명적이었고 이로 인하여 추사는 불교에 정심하였다.

^{*} 나무그늘 : 석가모니는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무렵. 현재의 네팔 땅, 룸비니 동산의 살라나무 아래 태어나 아사타 나무그늘 아래에서 '더 이상 위없는 깨달음(보리)'를 체득하였고, 이후 80세 때두 그루의 살라나무 사이에서 운명했다. '나무그늘'은 그러므로 석가모니일생과 불가분의 관련이었다.

^{*}탁발: 걸식乞食, 불교의 수행방법의 하나, 승려가 경문을 외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얻는 보시.

Hwaamsa Temple's Words

An Encounter with Hwaamsa

Though it can't be touched with hands and seen with eyes.

Mendicancy is perpetuity, so find your home in the shade of a tree and
Be a moktak since you're bat-blind

Live on the lifelong discipline of silence with diligence.

^{*} Moktak: wooden percussion instrument used for chanting by Buddhist clergy.

입춘첩 불기둥 폭풍

입춘일 새벽은 칼바람이라 기와지붕 추녀에 매달린 고드름에 어린 추사의 입김 서린 대문, 활활 타오르는 대문의 힘이 불러내는 당대의 기인, 초정楚亨, 북학파의 대가인 초정이 정월 대보름날 보름달로 떠 등촉구에 무지개 피워 두꺼운 벽속에 길을 세운다

^{*} 당시 빈번하게 쓰인 문구는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趣陽多慶, 부모천년수 자손만대영父母千年壽 子孫萬代榮, 수여산 부여해壽如山 富如海, 소지황금출 개문만복래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 거천재 래백복去 千災來百福, 재종춘설소 복축하운흥災從春雪消福逐夏雲興 등이다.

^{*} 등촉구檢燭具: 촉대燭臺, 등가, 좌등, 촉농, 등잔 등을 말한다. 등기燈器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대라기보다 한대에 가까운 풍토에서 오는 폭우와 추위를 막아내기 위하여 생긴 두꺼운 벽과 폐쇄적인 생활공간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예부터 의식이자 신앙이었고 영혼에까지 비유되기도 한다.

^{*}초정: 박제가의 호

Spring Slips(Ipchuncheob) to Be Fire Pillars

The biting wind blows at dawn of Ipchun,
Icicles're hanging from the eaves of tiled roof, and
The main gate is misted up by young Chusa's breath.
The power of the flaming gate
Summons Chojeong, eccentric man of the time.
Chojeong, a great scholar of Bukakpa rises as the first full moon of the year,
Makes a rainbow over a lamp and then
Builds a road in thick walls

^{*} Ipchun: the formal beginning of spring by the lunar calendar

^{*}Chojeong: Park Jega's pen name.

스승 박제가

너는 나의 무릎이다 정좌하여 서로 무릎 맞댔으나 나는 마음무릎 꿇고 있다 천하의 도를 가르치려 함이 아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 새로운 문물의 수용, 상업과 무역의 장려와 개선이 중하다 국부를 축적하고 집안을 안정시키며 부국강병富國强兵의 힘 배우려 나도 무릎 꿇고 있다 무릎 맞댄 네가 나의 북학의다 내 영혼 사리술체다

^{*}북학의: 초정 박제가의 저서.

Master Park Jega

You are my knees

In the lotus position, we are sitting knee to knee

Yet, my mind is kneeling

I don't mean to teach the principle of the universe.

Practical Learning,

The acceptance of new culture.

It is important to promote and improve commerce and trade.

To accumulate national wealth,

To manage the family, and

To learn how to achieve national prosperity and defense

I'm kneeling,

You, sitting knee to knee are my Bukhagui,

The sacred Buddhist relics of my soul.

^{*} Bukhakui: a book which Park Jega authored.

김노경, 추사의 학문탐구에 대하여 책망하다

청년의 때는 빈 몸도 법신法身이다 깨어라, 일어서라, 싸워라, 너는 장부라 귀근왈정歸根日靜, 생명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고요함이 있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여 새 꿈이 되라, 너는 대장부라 쉼 없는 수신과 수양으로 너를 만나라

^{*} 법신法身: 정신적인 실체, 진리의 몸체, 원래는 석가여래의 삼신의 하나.

^{*} 귀근왈정: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치. 한편, 김노경은 청년 추사에게 과거공부는 안 하고 도 덕경을 읽는다며 손수 쓴 편지글을 월성위궁 추사에게 보내어 엄히 훈계한 바 있다.

Kim Nogyeong, Admonish Chusa's Useless Learning

Empty hands as he has, a young man is by definition Dharmakaya Wake up, get up, fight as you are a promising man.

Gwigeunwaljeong(歸根日靜). 'Tranquility is in the root of life'

Bear the words in mind and put them into action

Be a new dream as you are a promising man

Meet yourself through lots of self-discipline

^{*} Dharmakaya: truth body or reality body. Originally one of the three bodies of the Buddha.

^{*}歸根日靜: a phrase from a Chinese classic text, Tao Te Ching

고택 제비집

- 청년 추사가 친우 조인영에게 보낸 편지글 행간

제비 주둥아리가 물고 온이 편지 읽걸랑 오게나, 팔봉산 줄기 탁주동이 넘치네. 혼자 말고 있잖나 왜, 어여쁜 손목도 같이 오시게나 목덜미 더운 입김에 봄 얼굴 아지랑이 일렁거려 한양 집집마다 알 품는 제비들이 잎 터트리는 봄이네 새봄이네, 빨리 달려오게나.

^{*} 팔봉산: 예산 응봉에 있는 산으로 추사고택 뒤편에 있는 용산의 조산. 이 시편에서 탁주동이는 술 동이로써 추사는 술을 즐겼다.

A Swallow's Nest in the Old Family Home

Hidden Meaning of the Letter Young Chusa Sent to his Friend
 Jo Inyoung

A letter that a swallow brings in its mouth
If you read, come over here.
Don't come alone, you know what?
Come with a lovely woman,
With warm breath at the nape of her neck
Spring haze is shimmering and
The swallows brooding in each house in Hanyang
Burst new leaves, It is spring.

It's new spring. Come right away.

새벽 등불의 말

- 교지敎旨, 생원시험 일등 합격을 쓰다

소똥이 소 우릿간을 덮고 있다 암소멍에 터에 앉은 휘장은 발버둥치는 썰물에 빠져나가는 집어등인가 어둠 속에서 어둠이 깨어나 제 빈 가슴에 비추는 제 목의 불빛, 새벽 등불의 말

^{*}생원시 : 생원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 및 하급관원으로 입사入仕할 자격을 얻으며 대과大科에 지망할 예비적 관문을 통과한 것이기도 하다.

Lamplight's Remark at Dawn

- A Written Order. Take the First Place in the Lower Civil Examination

Cattle kraal is covered with cattle dung.

A curtain on the place where there used to be a yoke
Is a fish-lamp that is swept away in ebb tide, struggling?

Darkness wakes up in the dark,

For its empty mind, lights up

The light of its own body, the word of dawn light

오전에 부르는 이름

- 추사 시·서·화 공부의 시작

보아라, 신암뜰 달리는 저 강줄기 보이라, 너는 물레 달리는 저 작은 냇물이었다가 보이라, 초가지붕에 내린 갓난아기의 탯줄 감긴 이슬방울이었다가 책 속에 숨은 활자였다가, 글씨의 한 획이었다가 오줌 먹고 크는 채마밭의 한 마리 무당벌레였다가 새벽이 키우는 부지런함을 배워 너는 게으르지 말거라, 너는 세류성강細流成江,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물 되라

^{*}세류성강細流成江: 미세한 물줄기들이 모여 흘러 강을 이룬다는 말. 즉, 추사는 한양 장의동 월성 위궁 서가에 영의정이신 고조부 가문 대대로 전해내려 온 수많은 서책을 섭렵하였으며, 명필이었 던 생부 김노경의 훈육을 따라 부지런히 학문을 궁구하여 이십대에 이미 당대의 거유巨儒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The Name Called in the Morning

- Begin to Study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Look, Take a look at the river stream running on the Sinam field, You,

Look at it after being a small brook turning a spinning wheel, on the
thatched roof

Being dewdrops wrapped with baby's umbilical cord,
Being hidden print in a book, a stroke of a character, and
A ladybug grown with urine.

Learn diligence that dawn nourishes, not to be idle. You,

Be an endless river like a big river consisting of lots of streams

성령 풀밭이여

- 추사 시학의 뿌리

논두렁 발두렁 산바람 들바람 강바람이다 풀잎 바람 이슬 참새 산까치 들쥐 두꺼비와 냇가의 조약돌이다 소나무 참나무 병꽃나무 박태기나무 수수꽃다리다 신암 풀밭 잇대어 청나라를 휘감아 돌아 신암과 한양 장의동 월성위궁을 꽉 채우고 있다 - 청나라 연경에는 거유巨儒가 산다 초정스승 말씀에 가슴풀밭이 쾅쾅쾅 대심방을 끌어당긴다, 유마경에 이르길 '수미산이 갓 씨 속에 들어 있다' 하였으니 시도詩道를 위하여서는 소동파를 거슬러 올라가 두보에까지 닿아야 하는 것을 정통으로 삼으리라 '문자향' 과 '서권기'는 필생의 궁구, 화풍이 기법이나 기술보다는 심의心意에 가치를 둔 것처럼 시론, 시의 대지를 감싸라, 무량한 성령 풀밭이여

^{*}시도詩道: 시 짓는 방법이다. 추사는 시에서 당풍康風과 송풍松風을 종합하는 것은 물론 명·청의 다양한 문예사조를 종합하였다. 명나라 문예사조인 성령론性靈論을 따르되 격조론格調論도 겸하려 했다. 청나라 학자들 중에서 추사는 옹방강의 기리설則理說을 토대로 왕사정의 신운론神解論을 수용했으나 추사가 가장 중시한 시학은 성령론, 즉 시인은 자기의 성령에 따라 자유로이 문학 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관을 견지하였다.

The Meadow with the Holy Spirit

- The Root of Chusa's Poetics

It's paddy field ridges, farm ridges, a mountain breeze, a river breeze
It's leaves, wind, dew, sparrows, magpies, vole toads, pebbles at a brook
It's pine trees, oak trees, weigela, redbuds, early lilacs
It connects Sinam meadows, winds around Qing, and
Fills Sinam and the Wolsungwee Palace in Hanyang.

— A giant confucian scholar lives in Beijing, Qing
At the master's word, the meadow in the heart, pitapat, draws atrium.

Vimalakirti Sutra says 'Sumeru is in a hay seed'.

To understand the poetics rightly,
Go back through Su Dongpo to Du Fu
'Scented words' and 'books with spirit' are his whole life research.

Like his painting style values the intention above technique or skills, Poetics,

Embrace the realm of poetry, Measureless Holy Meadow!

화암사 요사체 누마루

찢어버리거나 불태워 없어질 나의 글이여 허망하기만 할 아침이슬 나의 삶이여 석정, 그저 고향우물 길어 단물 마실 뿌 나는 그 어떤 것도 남기질 원치 않는다 유산이나 유품. 연모 따위 그 어떤 글도 지상에 남기길 거부하면서 나는 샘물, 그 표현의 내자를 격동시킬. 존재의 중심을 예술로 승화시킬 필경筆#을 궁구하며 문장에서의 독심이거나 독특한 시경詩境에의 행로를 고뇌한다. 전 생애 통털어 나는 그 일만을 위하여 일평생 누마루로 살아가길 청하니 훗날 나를 찾는 동향의 가인 한 사람 빼고 그 누구도 나를 호명하며 호가위層駕威치 말라 내가 천수한 뒤에도 그 누구 한 사람 나를 거명치 말라 말라버릴 일 없는 우물바닥 달구며 임종 이르러 한 번 마지막 숨 내쉬고 화암사 처마 제비집 옆자리에 내 몸 짓부수어 짓는 꿈. 고요의 아침나라, 화암사 요사체 누마루여

^{*}예산 화암사 : 추사 가문의 원찰, 지금은 수덕사 말사다. 추사는 살아생전에 무수히 글을 썼으나 단 한 권의 시문집도 출간하지 않았다.

^{*} 내자內者: 몸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나 존재, 혹은 아내의 이명.

^{*} 가인歌人: 가객歌客 혹은 율객律客을 말한다.

Numaru of Hwaamsa Yosachae

My writings that will be torn or burned.

My evanescent life like morning dew

A stone well. I just drink palatable water drawn from the hometown well.

Anything such as inheritance, keepsakes, or yearning, I don't want to bequeath

Any writings in this world, I also refuse to bequeath

Spring water. To stir the inner self of expression

To sublimate the center of existence into art, I throughly investigate professional writing

The sincere sentences or the path to the boundary of the unique poetry I agonize over.

To do only things like that during my life

I will gladly live as a numaru.

Except for a celebrated artist from my hometown to come to see me

Don't drop my name to exercise authority over others

Don't drop my name even after full of years.

After heating the bottom of the inexhaustible well,

Breathing out my last breath on my deathbed

I dream of breaking my body to build a nest next to the bird's under the Hwaamsa eaves,

The land of morning calm. Numaru of Hwaamsa Yosache!

석년石年

추사고택 사랑채 돌시계가 어둠을 끌어 오고 있다 죽음을 남기지 않는 캄캄한 시간의 용마루 끝자락, 째깍째깍 자신을 밀어내는 시침소리들이 꼬박 낮을 밀어내다가 저물녘, 가슴휘장 걷어 제 생살 저며 빈 허공에 허망處網 하나 우뚝 세워놓는다

초침은 이 무렵을 위하여 고단한 걸음 걸어왔다 하루, 한 달, 한 해에서 결국엔 죽음을 열고 닫는 돌쩌귀, 섬돌 아래 무너지는 섬광 밀어내는 속눈썹이 화장장 불가마의 얼음언어가 문 열고 닫는 걸 목도하는 일이다 망에 걸려드는 것은 언제나 어둠의 미로, 모든 목숨유명들은 이 캄캄한 순간을 보는 것이다

벌·나비가 꽃술 찾는 봄이나 여름, 갈은 그러므로 없다 시간은, 내가 살아온 시간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살아갈 날들도 지상에 남아 있지 않다 나의 자리는 붉은 흙탕물 흐르는 돌시계가 토하는 광음光陰, 울 밖 석정이 밀어 올린 해시침 쳐대도 내 곁에 남아 있는 것은 없다, 나도 없다 나의 호흡, 내 작은 존재 또한 그 어디에도 없으리라

* 석년 : 추사고택 화단에 추사의 자구, 상우가 세운 돌시계를 말한다.

A Stone Clock

The sarangchae stone clock in the old family house is attracting darkness.

Onto the end of the ridge at the dark time that does not leave the body.

The ticking hour hand pushing itself.

Having pushed out an entire day, at sundown, it draws back a curtain on its chest and slices its flesh

To set up one empty net in the air.

For around this time, the second hand walks dragging its tired leg
After a day, a month, and a year, finally the hinge opens and closes death.
Eeyelashes that push a flash collapsing under the stone steps
Witness the ice language of the crematorium forge opens and closes the door.
Caught in a net is always a maze of darkness.
The fate of all living things sees this dark moment

Therefore, there are not spring, summer, and fall when bees and butterflies visit flowers

The time when I have lived, is nowhere in this world

The time to live is not left in this world

My seat is lost time which the stone clock with red mud water makes.

Though I rub sun hour hand that the stone clock outside the fence pushes

There is nothing left beside me, neither am I.

My breath, my little being will also be nowhere else.

^{*} sarangchae: the space for men in a house

내거울을 닦다

- 추사, 경학에의 입문서

조그마한 몸. 참깨 탁탁 튀다

아주 작은 마을의 냄비에 강제로 들어박혀 이리저리 뒤섞어대는 주걱을 향하여 톡톡 튀어 오르는 고소한 냄새가 샛길 없는 생의 시차를 왕래하며 나그네 김 앞에서 눈 감는

저것은 가열찬 정죄靜坐

나의 향이, 닦아낼 불거울이, 있기는 할까, 육체는 언제나 육체를 찔러 찔레 꽃 그늘 아래에서 등허리 긁으며 깨어난 영혼 상처마다 심난하고 심히 가려워 뒤척이는

저것은 간단없는 정양靜養

^{*} 경학: 추사는 연경에 입경하여 완원과 옹방강을 만나 완원으로부터는 청나라 학자 73인의 경전해 석서인 황청경해를 선물로 받게 되고, 옹방강에게는 편지로 물어 기히 배운 경학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경학의 지경을 심원케 한다.

^{*} 정좌靜坐와 정양靜養 : 글을 읽는 목적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함이며 그에의 실천덕목으로 정좌와 정양을 중요시했다. 불교의 정좌법에다가 실천을 더하여 성숙한 정좌의 전통을 확립하였고, 중국의 〈예기〉에서 말하는 산재散露와 치재致齋, 즉 제사를 올리기 7일전에 목욕하고, 제를 마치고나서 3일간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일종의 정양이다. 추사 학문의 틀 거리는 이 둘을 원용하여 성숙시켜 갔다.

Rub my Mirror

- Chusa, a Primer on Confucian Classics

A tiny body. Sesames bounce patter

Forcibly put in a tiny village pot, they're stirred here and there to parch with a rice paddle, toward which the aromatic scent of roasting sesame bounces tok tok and closes its eyes before a traveler, after coming and going between time differences without a byway

This is a rigorous lotus position.

Is there a fire mirror for my scent to rub? The body cuts itself and a soul wakes from sleep, scratching its back in the shade of the wild roses and turns over as every wound is ever so itchy

This is an incessant Buddhist practice.

생부 김노경, 여덟 살 추사가 쓴 편지를 읽다

맑구나 너의 글, 밝구나 네 마음 기쁘구나, 인편에 가져온 네 한무 편지.

- 굽어 살피지 못하는 한여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소자는 어른을 모시고 책읽기에 한결같이 편안하오니 걱정 마십시오. 백부께서 이제 곧 행차하시려고 하는데 장마가 아직도 그치질 않았고 더위도 이와같으니 염려되고 또 염려됩니다. 아우 명희와 어린 여동생은 잘 있는지요. 제대로 갖추질 못합니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사룁니다. 계축년(1793) 유월 초열흘 아들 정희가 아룁니다.*

청개구리 앉은 앞 뜰 연못의 흰 수련 연꽃잎을 따서 호수에 띄우는 너는 나의 좋은 꿈, 고맙구나, 아들아 마음이 깨끗해야 기가 바르다*를 기억하라 이 말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라 쉼 없이 수신과 수양으로 자아를 성찰하라 문중 장손으로 백부모님 잘 섬기며 새 문물 익혀 나라의 동량으로 아비보다 월등한 인물로 커가라, 아들아

^{*} 여덟 살 추사가 아버지 김노경에게 쓴 한문 편지의 한역 전문.

^{*} 심정즉기정 : '마음이 깨끗해야 기가 바르다'라는 말. 심부정心不淨의 반대말.

Birth Father Reads a Letter Chusa, aged 8, Wrote

Clear is your writing, joyful is your mind!

Happy am I to see your Chinese letter sent by someone

— During summer I couldn't take care of you, I wonder how you have been. I am missing you badly. Please don't worry about me as I respected the elders and read a book as ever. I'm really anxious about the uncle's journey now because both the rainy season and the heat wave have not ended. I also wonder how my brother Myeonghui and my little sister are doing. Please excuse my letter in an informal style. Your son Jeonghui writes this letter on the 10th day of the 6th lunar month in 1793.

The white lotus on which a tree frog sits in the front yard pond Its leaves you pick up to float on it.

You're my pleasant dream. I appreciate it, Son.

Remember that pure energy comes from clean mind.

Keep this word in your mind to put in practice.

Introspect yourself incessantly with self-discipline.

Serve your uncle and aunt heartly, and

After learning the new culture, as a pillar of Joseon

Be a far superior person to me, Son,

고택모란

- 추사와 실학에의 궁구

봄 화단이 피워 올리는 연초록 보따리에서 뭔가 시궁창에 내던져 버린 치조음 뚫고 나오는 맘보따리가

가마 타고, 혹은 걸어가고, 혹은 책상에 앉아서, 서서, 혹은 누워서 봄빛 물결 받다가 오석산 아지랑이 피는 안마당에서 무슨 일인가, 정통적인 고증학적학문이 실제 실용에 쓰여 고택 뜰 붉은 모란 꽃망울 만개하는 숨결은, 고택 모란은 어찌 봄을 알고 피어나며, 오래 읽어 온 경학에서의 농어민들에 해당되는 경세치용은 뭔가

청년 추사 고택 뜰에서 별무리와 밤을 밝힐 때, 고택 모란이 피어난다, 모란이 진다, 모란이 피다

^{*} 경세치용經世致用: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유교의 한 주장이다.

Peony in his Home Garden

- Thorough Investigation into Chusa's Practical Learning

Something out of a pale green bag which blooms in the summer flower bed

Its heart bursting through alveolar consonant, thrown in a ditch

Enjoys the waves of spring light, riding in a palanquin, walking, sitting at the desk, standing or lying back. What happens to the yard in shimmering haze of Oseok mount? When the orthodox study on ancient documents is used for practical application, the red peonies in the old home garden breathe, blooming. How do the peonies in this garden know spring time to bloom, and what is truly practical learning for farmers in Confucian classics that have been long read?

When young Chusa stays up all night with a group of stars in the yard, The peonies in the garden bloom, peonies fall off, peonies bloom,

달마중 입술

- 생모, 기계유씨의 망亡

며느리 얻고 채 일 년여 서른다섯, 꽃길에 어디 가셔요 열여섯, 저는 어찌 배겨나요 가슴 치며 지붕지통 회한에 얼굴 그려놓고 얼굴 보며 눈 뜨고 꾸는 신유년 팔월, 중추절 사흘 전 달밤의 꿈

^{*} 신유년 : 1801년, 추사나이 열여섯 되는 해. 추사 생모 기계유씨 졸卒하다.

^{*} 지붕지통地崩之痛: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이름.

Lips for Meeting the Moon

- His Birth Mother Gigyae Yu's Death

In less than one year after getting a daughter-in-law

Where are you, aged 35, on the flower road?

How can I, aged 16, bear it?

Grieving her loss, beating his chest

After painting her portrait, seeing it

He dreamt with his eyes open in the 8th lunar month 1801

A dream of moonlit night on three days before the Mid Autumn festival.

고택 조롱박

- 추사 붓글씨에의 단상

오동지 섣달 내내 눈길 걸어온 붓이 벼락 치는 칠월 장마에 아귀 터 올라 주렁주렁 달린 저 정신의 수묵水墨

^{*} 추사의 가문은 증조부 월성위 김한신을 비롯한 일문 전체가 대대손손 명필가로 소문이 났고, 추사는 물론 그 아우들에 이르기까지 명필로 유명한 가문이었다.

Old Family Home's Gourds

- Fragmentary Thoughts on Calligraphy

During the bitter cold winter

An ink brush having walked in the snow

Sprouts in the rainy season with thunderbolt of July

Growing in clusters

That spiritual ink

열일곱 살의 웅지雄志

- 추사의 첫 한문 시편

蓋然奇別想 개연히 한 생각 일으켜

四海結知己 사해에서 널리 지기를 맺고 싶네

如得契心人 만약 마음 맞는 사람 얻게 된다면

加以爲一死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겠네

日下多名士 하늘 아래 명사가 많다 하니

艶 不自己 부럽기 그지없어라

지금도 신암 용궁리 추사 묘소에서 스승 박제가의 호탕한 웃음소리 울려 퍼지다 반도를 집어삼키는 웅혼한 울림, 배움의 바다를 향한 강렬한 의지, 글 한 편이 모두 추사의 영원 목숨이라 길이길이 후세를 쳐대는 정채이자 합장한 두 손끝에 번지는 필생의 간구

^{*} 추사가 열일곱 살에 쓴 한시漢詩

Seventeen Year Old Boy's Great Ambition

- First Chinese Poem

With never failing idea

I would like to meet appreciative friends in all the world

If I happen to meet a congenial one,

Maybe I will give my life for him,

They say there're lots of distinguished people under the sun I'm so envious,

From Chusa's tomb in Younggungri, Sinam

His master Pak Jega's laughter resounds to this day.

A sublime echo devouring peninsula,

A strong will heading for the sea of learning

Each poem is his eternal life

It's not only gong striking for posterity for ages

But also his lifelong entreat praying ardently with his hands clasped

신암 고을 낮달

뜬눈으로 새벽 물어오는 새벽닭이 횃대 부수고 있다, 기어이 제 부리로 앵무봉 나리꽃술에 날빛을 뿌릴 때다 툭, 유월 바다숭어 솟구쳐 신암 백송나무 뻥 뚫린 속을 쳐대고 있다

사라지지 않는 아침의 눈동자

^{*}용산은 앵무봉과 오석산을 거느리고 있는데, 앵무봉 아래에 추사고택이 있다.

Day Moon

The rooster that fetches dawn after a sleepless night
Breaks a perch and when with its beak, it
Finally sprinkles sunlight on trumpet lily's pistil,
Chonk, June trout jumps over the sea, and
Chusa's eyes beat the empty column of a Sinam white pine.

Morning pupils linger



제2장 조선의 토방

Tobang of Joseon

조선의 토방

남촌 바라보는 마당가 키 큰 미루나무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낯익은 웃음소리의 집이 있다.
안마당에 자욱이 깔려 무적霧笛 울리고
골바람 끼고 댓돌 밟는 토방에서 눈부신 흙이
화톳불 피워 별을 낳는다.
가슴 벅차라, 맨 처음 맨발 받아준 대지는
두근두근 가슴 뛰는 밤을 지나 밤새우기를 거듭하며 흙에 쌓여
쌓여, 신암 구렁목마을 서가의 시렁물살에 흙 쌓여
잘 보라, 빛, 일제히 눈뜨는 봄빛,

Tobang of Joseon

Once a tall poplar facing Namchon in the yard

Walks in the door, there is a house full of familiar laughter

Due to the thick laughter in the front yard, horns blow

Brilliant soil in the tobang where we treads on terrace stone in the valley wind

Builds a bonfire to produce stars

With joy my heart overflows. The earth that first embraced the bare feet,

After the night when the heart went pitapat, as many nights went by, soil piled up on the earth

Continued to pile up by the wave of Gooreongmok wall shelf Look carefully. Light, spring light waking up all at once Look at the tobang of Joseon where the lives sprout,

^{*}Tobang: a raised flat earth floor sometimes with a steppingstone at the door, also known as tomaru,

추사의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

항용, 추사가 주창한 예서 화롭의 법이 그러하다면 예산 향리에 묻혀 사는 무명인 나는 불면不眠이 마땅하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다

다 닳아버린 빗자루 몽둥이 닮은 몽당붓으로 추사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뜻', '뜻'을 강조하면서 쓰기를 '문자향·서권기'라 했다 문자에서 나오는 향기와 책에서 우러나오는 기운, 예서를 씀에도 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능히 손끝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법도, 춘추의 필법이 추상같았던 필법의 이치, 붓끝 자존의 심지가 그리 엄정하거늘 천의무봉天衣無縫 근접할 창작의 각고는 필연이라

분주한 일상이나 잦은 외출, 나태, 등등의 잠 잠, 내 어찌 간단히 잠에 든단 말인가 자정에 깨어 인시_{寅時} 넘어 영원의 혼을 만나다

Scented Words and Books with Energy

If it is the rule of clerical script that Chusa always advocated I, living in hometown without a name

Cannot sleep well thinking I deserve a sleepless night.

With a worn out brush looking like a worn-out broomstick

A letter Chusa wrote to his son, 'Meaning' in it,

Emphasizing 'meaning', he referred to it as 'scented words' and 'books with

energy'

It marks the scent that characters have and the energy that comes from the book.

This also means there is a rule of clerical script

With this, your fingertips naturally flow.

Rule, the principle of brush strokes where the Confucian way of criticism was stem. The pride of the brush point is so strict

That the hard work of creation to come close to the perfect beauty is inevitable

Busy daily life, frequent going out, laziness, sleep and so on, Sleep, how can I go asleep easily?

I wake up at midnight and meet the soul of eternity past 3 or 4 o'clock

아시성安市城에서

- 스물네 살의 추사 시편

우뚝 선 뭇 봉우리 가운데는 들판 수레와 말방울 떨렁떨렁 큰 들판에 널렸구나 성 위엔 아직도 당나라 때 달이 남아 있어 반쪽은 이지러졌고 남은 빛은 그대로 비치는구나*

폭풍우 말 발굽소리, 압록강 가로질러 요동 봉황성 들썩이는 저 소리가 조선의 관음觀音이다 나, 추사의 눈알 나, 추사의 생명선이다

^{*}추사가 24세 때, 안시성에 올라 쓴 시편이다. 통상 추사의 시는 시적 대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한 긴 장과 이완의 두 국면을 담는다. 대상에 구속되기보다는 시적 대상과 시적 주체와의 만남에서 일어 나는 흥회興會를 중시한다. 이 예술적 경험은 선종의 돈오顧問(별안간 깨달음)와 유사하며 추사는 그를 신통유희神遍遊戲, 또는 유희삼매遊戲三昧라고 했다.

At the Walled Fortress Ansi

- Poem Written at the Age of Twenty-four

In the center of a towering mountain

The large field is filled with wagons and jingle jingle of horse bells.

There remains the moon from Tang over the fortress.

The half of the moon wanes, yet the remaining part still shines.

The horse hoofbeat in a storm
Crosses Amnok river and
Shakes fortress Bonghwang.
Its sound is Avalokitesvara of Joseon,
I, Chusa's eyeballs.

I, Chusa's lifeline.

연모에 대한 변명

- 추사가 산해관에 던진 독백

명나라 숭정황제 때다. 명장明將 오삼계 장군이 오십만 대군으로 지키고 있 던 이 처험의 요새를 무너트린 것은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다. 진위위, 이 한 여 자에 관한 오삼계의 연모다. 연모.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명나라 수 도 연경에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고 난 뒤 황도를 점령한 이자성의 군대 장군 중 에 유종민이 진원원을 강탈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오삼계는 분노에 치를 떨면 서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는다. '대장부로서 여인 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 찌 사내라 '오삼계는 즉각 청국 측의 18만 명. 정예 병사를 거느린 청나라 도로 곤에게 친히 천하제일관으로 불리는 산해관 관문을 열어 제친다. 갑신년 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총 인구 백만 명에 지나지 않는 만주족이 당시 일억 명 이상 이었던 명나라 백성을 지배하는 단초다. 이 역사의 이면에는 오삼계의 진원원 에 대한 연모가 근간이다. 이 연모가 몽고의 자그마한 부족이었던 누르하치가 처혜의 요새를 차지하고 첫나라를 세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츳 의忠義라는 표면적인 대의명분이나 힘의 우위 여부만이 역사를 형성하는 게 아 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역동성, 드러나지 않지만 심상의 근저에서 소용돌이치는 사모의 격동성 역시 하나의 위대한 역사다. 그 렇다면 연모란 본디 역사의 한 페이지의 기록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모하고 한 입술을 그리워하고 한 가슴을 품는다는 것 또한 역사의 정립 아니고 무엇인가. 연모가 천하에 가장 견고한 요새인 산해관을 넘 을 수 있는 등식이 성립된다면 한 사람이 연모하는 단 한 사람을 가슴에서 내 려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기실 그 자신의 무수한 고뇌, 열등감, 절망, 분 노. 탄식, 무의미, 상처의 산해관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천험의 산 해관을 넘는 중대사이며 이것이 곧 역사 정립의 주요 인자 아닌가. 심혈을 기

울여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 간의 이야기는 오히려 정사正史보다 더 사실적인 정사正史 아닌가. 추사가 천하의 명사들을 만나려는 열망에 휩싸여 이 천험의 요새인 산해관 넘는 것에서 출발한다면 산해관이란 요새를 통과하는 일은 단순히 새 관문을 넘는 일만이 아니다. 그것은 무수히 잠들어 있는 이 땅의 진실한 연모와 연모를 잃어버린 인간의 대지를 깨우는 일이다. 연모란 결국,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일이란 결국, 여린 줄기가 굳어져 마침내고목으로 성장하는 일이자 한 시대를 새로이 여는 한 인간의 존엄한 개문開門이며 한 생애의 개문이자 한 시대의 개문이다. 이것이 나약하기 그지없는 한인간이 일으키는 기적이다. 동시에 역사로의 비상이다. 새 학문과 예술을 향한 궁구 역시 새로운 연모의 새 페이지를 여는 일이며 족히 인간의 영역에서 가장심원한 울림이자 역사 중의 역사 아닌가.

^{*}산해관: 산해관은 일찍이 수, 당나라 시절에는 임유관臨制關, 요나라와 금나라 때는 천민현遷民縣· 천민진遷民鎮 등으로 불렸다. 산해관은 중국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이며 오늘날에도 만리장성에서 가장 잘 보전된 관문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 시편은 중국의 정사가 아닌 야사를 소재로 쓴 시편 이다.

^{*} 갑신년(1644)

Excuse for Love

- Chusa's Monologue in Shanhaiguan

It was when Chongzhen Emperor ruled over Ming. It was not a powerful military force that captured the natural fortress guarded by wise general Wu Sankuei with half a million army. That was because of Wu Sankuei's love for a woman Chen Yuanyuan. After Chongzhen Emperor, the last emperor of the Ming, hanged himself on a tree in Beijing, Wu Sankuei heard, Liu Zongmin, one of the Li Zicheng's generals who occupied the capital city rubbed Chen Yuanyuan, Outraged at the news, Wu Sankuei shouted to himself, 'if I can not protect a woman as a man, how can I be a man?' Immediately, he opened the gate of unrivaled fortress Shanhaiguan to Oing's Duoergun with only 180 thousand elite soldiers. This incident in spring of 1644 was the first step for Qing with only a million Manchu people in total to rule over Ming with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The hidden side of the history was Wu Sankuei's love for Chen Yuanyuan. Wu Sankuei's love was crucial in enabling Mongolian tribe chief Nuerhachi to occupy the fortress and to build the Qing Dynasty. It was not only such superficial cause as loyalty or dominant power to form history. The invisible, hidden dynamics that moved the mind and the turbulence of whirling love were also great history. If so, can it be said that history is originally the record of love? Thus and so, can it become new history to love someone, long for a kiss, and to keep a lover in all to oneself? If love was the power to cross the substantial fortress Shanhaiguan, keeping a lover in the heart forever could become important affairs to ultimately overcome Shanhaiguan of death as well as cross Shanhaiguan of one's own infinitive anguish,

inferiority, despair, anger, lamentation, meaninglessness, and affront. And it can also be a vital factor to establish history. Is a true love story between two more authentic than history itself? It was not merely to cross a new gateway that Chusa crossed the unrivaled fortress Shanhaiguan with aspiration to meet celebrated scholars in the world. That was to wake up lots of true love that lay asleep and the human land that had lost true love. Love, in other words, that one person loves another truly is actually the growth process of a tree where its tender stems firm up to changed into old tree, the dignified opening of a new generation, the opening of the life, and the opening of a new era. It is a miracle made by all too weak human beings. At the same time, it is soaring up to history. The quest for new thoughts and arts is also to open up a new page of new love, and it is the most profound echo in human realm and history of history.

완당阮堂

땅 아래 나무뿌리 틈바구니에 매달려 오랜 기간 동안 움츠리고 있는 애벌레가 땅을 뚫고 올라와 우화하는 데는 여름의 한 순간이면 족하다 적절한 공기와 온도를 만나면 낡고 칙칙한 지하 어둠에서 날아올라와 새 날개를 낸다 일순간에 나를 우화시키시는 완원이시여, 집, 나의 집은 세상이 아닌 영원별에 있나이다. 나의 스승, 나의 집, 완원이시여

^{*}완당: 503개, 추사가 일평생 사용한 호의 숫자다. 이러한 호를 일러 당호宣號·아호珊號·별호珊號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는 당대唐代부터 시작해 송대宋代에 일반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나타났다. 현대의 문인들이나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필명筆名이라고도 한다.

^{*} 우화%化: 번데기가 변하여 성충이 되는 일.

Wandang

Hanging between roots below the ground, and huddling itself up for a long time, a larva goes up through it and transforms into an imago in a flash on one summer day. With suitable air and temperature, soaring from old and dull darkness, it spreads new wings. Ruan Yuan, you metamorphose me in a moment. My home is in everlasting star, not in this world, my teacher, my home, Ruan Yuan,

필담서

1 너의 피는 희다 너의 혈관이 불타오른다 너를 껴안는 파도, 무덤에 들어서도 출렁거린다 너는 너의 푸름으로 결국 눈이 멀고 글씨가 아니다 피다 너의 피는 검다 그, 그것을 오로지 굳게 믿는 나는 너다

2 붓끝 치는 벼락, 한 번 붙으면 영영 꺼지지 않는 정신의 벼락불

^{*} 필담 : 추사가 청나라에서 스승인 완원과 옹방강과 소통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필담이다. 옹방강과 추사가 나눈 필담서가 남아 있다.

Conversation by Writing

1

Your blood is white
Your blood vessel flares up.
Waves cuddling you
Are rolling even in the grave.
Your freshness
Finally made you blind.
It is blood, not letters.
Your blood is black.
Firmly believing it
I'm you.

2

The lightning hits a brush point,
Once a fire breaks out
Eternally unextinguished
It is lightening fire of spirit

주학년朱鶴年의 추사전별도

버들강아지 피는 꿈결인가 두 달 체류기간이 지나고 연경에서 귀국하는 길 청나라 화가가 그림을 치다 이름 하여 '추사전별도' 빛나라, 청나라를 흔들다

^{*}추사전별도秋史餞別圖: 추사와 금란지교金蘭之交를 맺은 주학련의 그림이다. 때는 1810년 2월 1일 추사의 송별연이 북경 법원사에서 열렸다. 노령의 옹방강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완원, 조강, 이임송 등이 모여 전별연을 베풀었다. 주학년은 송별연 장면을 즉석에서 스케치하고 거기에 참석자 이름을 모두 명기해 놓았다. 추사 25세 때의 일이다.

Jhu Hanonian Paints Farewell Party for Chusa

Like a dream that pussy willows sprout

After staying for 2 months in Beijing

Just when he returned home

Qing's painter drew brush strokes

Which title is 'Picture of Chusa's farewell party'

Glorious Name, shake Qing

추사, 조용진 입연 전별시를 읽다

연경에 가서 옹방강을 만나보라 권유하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예禮 올리며 피고름 터지는 이 글은 겨우 스물일곱 살, 그 나이에 쓴 예산 산봉우리의 추사 붓 눈동자!

^{*}추사의 이 시편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원본이 있다.

Chusa's Farewell Poem for Jo Yongjin to Go to Beijing

Meeting Weng Fanggang in Beijing
Each letter recommends
Respectfully written with bloody pus,
By only a 27 year old man
Chusa's brush pupils on the mountaintop of Yesan!

^{*}This poem is displayed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시암詩盦

예산 땅에 흐르는 청나라의 팔십 년, 꼭 팔십 년을 살아온 옹방강은 일찍 알아보셨을까 손수 써 보내준 글, 시암이여 시암, 시의 정신, 정신의 정수리 되라

*시암: 스승 옹방강이 추사에게 써서 준 글.

Siam

Qing's 80 years flowing in Yesan.

Perhaps Weng Fanggang, aged eighty, recognized it early Siam, calligraphy that he wrote for Chusa

Siam, be the poetry spirit and top of spirit.

^{*}Siam: Chusa's pen name. Weng Fanggang wrote for Chusa in calligraphy.

옹수곤에게

– 추사의 학문과 예술의 도반

번, 친밀하여 언제나 함께하는 벗 단 한 사람만 말한다면 성원星原*이오 보소재 은사 아들이고 나와는 동갑 나이이기도 하지만, 성원 놀랍소 수십 차례 주고받은 서찰들 유려한 문장과 탁견들 가장 친근한 번, 가장 고결한 번 단 한 사람만 말한다면 성추星秋요

^{*}성원, 성추 : 옹수곤의 호. 여기서 성추는 옹수곤이 추사를 흠모하여 스스로 지은 호. 옹수곤과 추사는 학예의 도반이자 학예의 뜻을 같이한 동지였다.

To Weng Shukun

- Chusa's Companion in Literature and Art

Buddy, close friend sharing life.

My only friend is Xingyuan,

My master Bosojae's son and

A friend of the same age. What a surprise, Xingyuan!

Scores of letter exchanges

A flowing and elegant style and outstanding ideas

My most intimate and noblest buddy

Xingqiu, my only friend.

인연의 길에서 만난 섭지선葉志詵

돌연 성추가 이 세상을 떠나간 뒤 보소재 선생이 추사와 맺어준 인연, 이름하여 섭지선이여 부모, 자녀, 형제는 하늘 인연이라면 살면서 옆 사람과 맺는 인연은 땅의 인연이라 서신뿐이지만 동경東卿이여 연경에서 보내준 탁본 자료들은 모두 보물급이라 혼이 숨 쉬는 이 귀함을 무어라 하오 아름다운 관계를 원한다면 아름다움을 투자하는 것임을 안다오

* 성추 : 용수곤의 호.

*보소재寶蘇齋: 스승 옹방강의 당호

*동경: 섭지선의 당호

Fateful Encounter with Ye Zhishen

After the sudden death of Xingqiu

The relationship tied by the master Bosojae,

Ye Zhishen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kids, siblings are tied by heaven,

And the one with the partner by earth.

Though we've known each other only by correspondences, Dongqing,

You sent the treasure materials for a rubbing from Beijing.

The preciousness of soul in it is beyond expression.

A beautiful relationship

Comes from a beautiful investment, I know

^{*} Xingqiu: Weng Shukun's pen name

^{*}Bosojae: Chusa's teacher Weng Fanggang's pen name

^{*} Dongqing: Ye Zhishen's pen name

청나라 학자들과의 교류

연意을 띄우다 처음으로 중국 대륙에 한반도의 중심, 충청 고을 예산에서 연을 띄우다 신암천이 뜨고 고택의 툇마루도 뜨다 천하, 아무리 드넓고 커도 어디 고향만 하랴 학예學藝, 아무리 오묘하고 심원하여도 고향 하늘만 하랴 불타오르기로, 아무리 찬연히 불타오르기로 예산 산봉우리 불길만 하랴 청조淸朝의 학자들과 무수한 조선 학자들을 싣고 연 띄우다 완당, 뜨거워라 중국 대륙과 조선에 온통 완당바람의 완당 연을 띄우다

^{*}완당바람: 추사 김정희가 청나라와 개인적 연을 맺은 것은 1809년(순조9)에 부친 김노경을 수행해 청나라에 간 게 중국 체험의 첫 계기다. 추사는 24세, 청년 학자로서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나이였다. 이때의 연행無行에서 추사는 기히 사모하던 청나라 최대의 금석학·고증학의 대학자이자 명문서예가인 웅방강 및 완원과 직접 만나 가르침을 받고 교유한다. 이후 경학·금석학·고증학·시학·서화의 화풍 등에 있어 추사의 학문세계와 예술세계를 좌우했다. 이는 주자학 중심으로 정체돼 있던 18세기 조선의 고루한 사상계에 있어 하나의 '숨통'이 되었고 당시 조선 사대부 및 학자들은 이를 일러 완당바람이라 하였다.

Academic Exchanges between Joseon and Qing

A kite flies up into the sky toward China for the first time.

The kite rises from Yesan in Chungcheong province, the center of Korea.

Sinam stream flies, and the toenmaru of the old family house flies, too.

Heaven and earth. However wide and large they may be, there's nothing like hometown,

Literature and art. However profound and mysterious they may be, there's nothing like the hometown sky.

However brilliantly they may blaze up, there's nothing like fire flame of the mountain peak of Yesan.

Qing' and Joseon's scholars on it fly up.

Wandang, ever so hot. Entirely in the sky of China and Joseon

Wandang's kites soar high on Wandang wind.

자하 송별시의 달빛

붓 내려놓으며 추시는 달빛을 맞는다 한양 도성 안 성곽에 하나 둘 불이 내걸린다

^{*} 일명 목운일루 10곡송이라 불리는 이 시편은 가친을 따라 연경에 가는 조용진을 위하여 추사가 스물일곱에 쓴 시이다.

A Farewell Poem for Jaha in the Moonlight

Putting down the brush, Chusa greets moonlight One by one, the lamps light up in Hanyang Wall

추사의 상투

원래 천상의 반아라는 말은 비수노首다 대과급제 이태 지나서 오른 한림학자의 품계에서 담양 대숲이 꼿꼿한 몸속에 들어오고 나가는 파도를 만들고 그때마다 숨 쉬는 붓촉이 스스로의 몸에 먹물을 들이붓는 무궁한 정신 바다, 신암 백송의 흰빛 묶어 틀어 올린 희디흰 조선 백의로 채색된 추사의 상투

^{*} 반이般若 : 대승불교에서 모든 법의 진실상을 아는 지혜. 추사 사후에 예산 향저에 모신 추사의 묘소에 조사飛鮮를 바친 조희룡의 조사 중에서 첫 구절에서 인용.

^{*} 한림학자: 예문관 검열을 말한다. 사명詞命, 곧 왕이 쓰는 각종 의례문서·명령서 등을 짓는 일을 맡았다. 예문관 검열은 일명 한림학자라 불렸으며 정9품의 품계이다. 한편, 규장각 대교는 조선 말기, 정조 원년인 1776년 설치하여 역대 임금의 글, 글씨, 보감實鑑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던 도서 관을 말한다. 대교德教는 정7품으로 추사가 역임하였던 벼슬이다.

Chusa's Topnot

Originally, heavenly prajna means a dagger

In two years after successful state examination, he rose to a royal archivist

The upright Damyang bamboo has in its trunk

Waves rolling in and back

Every tide, in the eternal spirit sea, the breathing brush point

Pours writing ink to itself.

Tied and knotted with white light of white pines in Sinam

Chusa's topnot painted in white of Joseon's white clothes

^{*} Prajna: wisdom or understanding considered as the goal of Buddhist contemplation.

조선의 유마거사維摩居士

유마거사, 일찍이 인도의 성인이여 항차 세존께서도 존경한 이에 빗대어 조선의 유마거사, 봉은사 주지가 추사를 일러 부르는 부름, 존중과 존경이 부르는 탄성, 진정에서 솟구쳐 사무치는 염력을 뿜어 용암, 활활 솟구치는 활화산 불길이 한 몸을 이뤄 마침내 편액의 불타로 서 있는 아름다워라 진리를 사모함이여 아름다워라 성인을 사모하는 생명이여

^{*} 유마거사 : 불교의 장점 중 한 가지를 들라면, 그것은 어떠한 권위에도 물러서지 않는 대자유의 기백이다. 성보聖實로 섬기는 경전을 찢어발기거나 불태우는 건 그래도 봐줄 만하나 살불살조穀佛經網라 하는 대목에서는 기가 질린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자유의 기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불법이 지니고 있는 그 살활 자재한 정신에 기인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근거를 유마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유마거사는 지혜의 화신이라 불리는 문수보살마저도 유마거사에게는 도저히 못 당해 내겠다고 한 전설적 인물이다. 그는 부처님의 정식 제자가 아닌 거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처의 제자들과 모든 보살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추사는 스스로를 일러 유마거사라 하였다.

Vimalakirti Grhapati of Joseon

Vimalakirti grhapati, a holy man in early India Buddhism

Who Budda also venerated. Figuratively, Chusa

Called Vimalakirti grhapati of Joseon by the chief monk at Bongeun Temple

Called out of deference and respect

Admiration, emission of psychokinesis surging from heart and soul

Lava, Flames erupting from an active volcano

Become one and finally Buddha in a picture frame

How beautiful it is to love truth!

How beautiful it is for life to love holy man!

신라 진흥왕 순수비 고증

- 정축년 6월 8일 김정희 조인영이 함께 와서 남아 있는 글자 예순여덟 개를 면 밀히 살펴보았다. *

서울 북한산에 올라 진흥왕 순수비를 살피다 예순여덟 개의 글씨, 마모되어 그 누구도 읽지 못한 수수께끼를 풀고는 옆에 동석한 벗 조인영, 훗날 영의정에 오른 친구를 껴안다 훗날 추사가 발표한 장문의 논문인 예당금석과안록禮堂金石過暖錄은 이를 살피는 형안

^{*}추사가 서른두 살 나이에 깨어진 비석 한 편에 쓴 글.

Historical Research on the Stele Commemorating King Jinheung's Tour

– Kim Jeonghui and Jo Inyoung throughly examined 68 remaining characters on the 8th day of the 6th lunar month 1817.

Examine the Jinheung Stele on Bukhan mount in Seoul Sixty eight characters

Too worn out to be read. When solving the cryptic message,

He embraces his friend Jo Inyoung with joy, who will be a prime minister in the future.

Afterwards, Chusa writes a long paper

Yedang geumseokkwaallok based on this research.

추사, 무장사비 파편을 찾아 글씨를 쓰다

경주 암곡동暗谷洞 계곡에서 환호, 풀섶에 뒹구는 무장사비 파편을 찾은 연유다

- 이 비의 서품書品은 당연히 낭공대사 백월서운비보다 위에 있다 할 것이며, 난 정첩에 나오는 숭崇자 머리가 점 3개로 씌여진 것이 오직 이 비석에서만 완전하 다. 옹방강 선생은 이 비를 고증하기를 동방 문헌에서 중국이라고 칭하는 것에 이 비만한 것이 없다고 하셨다. 나는 두세 번 다시 쓰다듬어 보았다. 정축년 4월 29일 김정희 쓰다*

추사가 보낸 탁본을 보고 고증한 옹방강, '왕희지 좋은 글씨 283자와 반속 자를 얻었다' 말한 용수곤, 절간은 사라졌어도 잔비廢蜂는 생명을 품어 열두 번 냇물을 건너온 추사가 추사 손으로 글씨 쓴 통일신라시대 무장사비 파편에는 남편을 그리는 한 여인의 염원이 살고 있다

^{*} 추사의 무장사비 품평문

Chusa's Impression on Newly Found Fragments of Mujangsa Stele

Cheers from Amgokdong valley in Gyeongju

That's because of the Mujangsa stele fragments newly found in a thicket.

— The characters on stele are definitely superior to those on Buddhist monk Nanggong stele, and the character 'sung(崇)' with 3 strokes at the top from Lantingtie is flawless only here. After studying the inscription, Weng Fanggan said that it was peerless. I stroke the stele two or three times. Kim Jeonghui writes on the 29th day of the 4th lunar month 1817.

Weng Fanggan ascertained the rubbing Chusa sent, and

Weng Shukun said, 'We gained Wang Xīzhī's 283 masterful characters and half a character from it'

Though there isn't the temple any more, its old stele still embraces life

Chusa, who comes across streams twelve times, writes himself

In the fragments of unified Silla Mujansa stele

A woman pining for her husband lives

^{*}Lantingtie(蘭亭帖): A copybook printed from the works of old masters of calligraphy and Wang Xīzhī originally wrote the preface,

남산에 올라가 통곡하다

- 스승 옹방강의 부음을 듣고

눈물이 전신을 쳐댄 적 있다 몸을 진동시키며 전신 떤 적 있다 한양 남산에 올라 중국을 바라보는 잠두봉蠶藥이 죽음을 마시는 폐엽肺葉 본 적 있다 사모하는 전율이 폭발하는 웅장한 허공을 만난 적 있다 눈물 타는 화엄을 본 적 있다

Wail on Namsan Mount

- Hear of Weng Fanggang's Death

I've ever wetted my whole body with tears

I've ever trembled so badly as to vibrate my body

I've ever gone up Namsan in Hanyang and seen the lunglobe of Jamdubong facing China

Breathe in death

A blasting thrill in veneration

I've ever met the sublime Great Void

I've ever seen Avatamska shed tears

추사, 화풍의 법을 논하다

기암절벽에 둘러 있대서가 아니다 시대의 절규를 품고 있다 영혼을 품고 있다 오석산을 별칭하여 소봉래산이 천하절경이어서가 아니다 그 품을 껴안는 우주 어머니가 생명들이 잉태하고 소멸하였다가 다시 환생하는 이름이다 어찌 매료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소동파를 거슬러 올라가 두보에 이르고 그 경지를 이르러야만 '문자향' 퍼져 그 경지를 더하는 '서권기'라 정신의 유일한 거처이자 몸체인 그림이여, 조선의 화풍이여 실로 문경이란 깊고 묘한 절규로다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卷氣: 추사는 말하길, "그림에는 가슴 속에 만권의 책이 쌓여서 피어나는 문자향(문자의 향기)과 서권기(서책의 기운)가 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문자향과 서권기는 조선 그 림의 법이 되었다.

^{*} 문경門經: 추사는 이 문경을 시도譯道의 기본으로 공부하여 깨우친 조선한시의 대가大家였다.

Chusa, Discuss the Painting Styles

It is not because rocky cliffs surround

It embraces the scream of the age, and it embraces the soul

It is not because a small Bongnaesan, another name of Oseoksan

Has unparalleled grandeur.

It is for mother universe embracing it,

To conceive life, die out and be reincarnated again.

How could we not be attracted?

Going back through Su Dongpo to Du Fu,

Only after reaching that realm does 'scent from letters' spread,

"A book with spirit" broadens its boundary.

The only one abode and body of soul

Painting, Joseon painting style!

Indeed, Mungyeong is a deep and mysteriou scream.

^{*}Mungyeong: the principle of composing a poem

추사의 시·서·화에 대한 단상들

사실 붓은 융기隆起, 갯바위 밤 파도에 부서지는 어둠, 어둠 알갱이를 곱씹어 뱉어내는 아침햇살, 붓 한 획에 쉬는 우주철학의 숨, 타오르는 내 눈빛, 연모, 영원한 연모의 지워지지 않는 심장의 화인太印이자 활화산, 붓이 내뿜는 폭풍의 고요

^{*}추사의 시·서·화의 예술세계는 심오한 학습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구축된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추사에게 있어 시서화의 일치는 격물치지格物效知를 내포하는 학문적 체계를 갖추어야 할 명제로 보았다. 추사의 시론, 서예론, 화론에는 동일한 창작의 전제·과정·목표가 있었을 뿐더러 중국 명· 청대 최신의 예술론을 궁구하여 절충 종합하여 자신만의 학예이론을 정립하였다.

Fragmentary Thoughts on Poetry, Calligraphy, Painting

Actually, the brush is upheaval,

The darkness breaking against the night waves on the rocks,

The morning sun chewing and spiting the grain of darkness,

Cosmological breath drawing in a brush stroke,

My flaming look,

Love, eternal love,

An indelible brand in heart and active volcano in one, and

Calm storm the brush spouts

완당바람

거대한 소용돌이의 블랙홀 천지, 온통 바람천지다. 바위산까지 들썩들썩 출렁이고 폐부를 관통하는 오석산 모래들과 만주벌판의 말갈기 바람 휘몰아쳐 조선 달구는 학예의 불빛 집집마다 밝혀 아이들 새 꿈을 꾸는 있다, 새로운 사랑이 있다 새로운 꿈이 있다 바람,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바람으로 나. 있다

^{*} 바람: 조선 후기 서화사의 일대 전환은 서체나 화풍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문학을 포함한 문예 전반에 걸쳐 일어난 것이다. 완당바람의 중심에는 당대 조선 후기의 최고 석학이자 위대한 예술 가로서 추사가 추구하였던 '학예일치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바람은 이를 내포한 시어이다.

Wandang Wind

A black hole with a big whiling vortex

Earth and sky. They're filled with all winds.

A rocky mountain also moves up and down

Passing through the lungs

The sand wind of Oseoksan and

The violent wind of Manchurian field,

Hitting horse's mane, blow.

The light of literature and art that heat Joseon goes on from door to door and

Children having a new dream.

There is, there is a new love

There is a new dream

Wind, it changes myself and changes the world

As a new wind, I am.

추사 감상鑑賞의 한 단면

대청마루 판자, 한낱 툇마루 판자가 활활 불타올라 붉디붉게 불타올라 잠자리 태우는 베갯머리 불이라

^{*} 감상鑑賞: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음미하는 일. 즉, 추사는 서화나 금석고증학뿐만이 아니라 시·사·화의 예술작품 감상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선 후기 당대 최고의 감식안을 갖고 있던 혹독한 비평가였다. 홍현주(無顧周, 1793~186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정조의 차녀 숙선용주의 남편이다.)는 그의 「지수념필에서 추사에 대하여 "감상이 제일이고, 글씨가 다음이며, 시문이 또 그 다음이다"라고 평하였다.

Chusa as an Art Critic

A board of deacheongmaru,
Merely a board of toenmaru
Burns furiously
Burns deep red.
Burning bed
A fire on the pillows

^{*}Toet-maru: a wooden veranda of an old house

^{*}Deacheong-maru: a traditional hall floor of an old house

천축고선생댁

호방한 추사 친필, 젊은 추사의 힘찬 기운, 스스로를 일러, 불제자들이 섬기는 고선생, 즉 인도에서 온 부처, 부처의 집이라니 참으로 기차다, 바위산 젊은 기백, 예산, 부처가 사는 성스런 땅, 본시 부처의 법신이 어느 한 곳에만 머무르시랴

시의 나라에서 부처로 살기는 예산의 진산인 금오산 서북쪽 산마을 평지에 이른 도고산 줄기, 오석산이 제격이라

신암 화암사 소나무 뒤편, 서리서리 영감 어린 숲에 가면 손마디 따습고 기개 드높은 단군성조의 후손, 한민족 최고의 예인藝人,

시 나라 부처, 추사 머무르시다

^{*} 천축고선생택天竺考先生記: 천축국은 인도를 뜻함. 추사가 매우 자고自高하기를 즐겼음을 이 문장에서 읽을 수 있다. 자신을 그리 불렀고, 그도 모자라 이 한문글씨를 써서 오석산 바위에 암각하였다. 자기암시였을까, 결국 추사는 임종 무렵엔 매일 발우공양과 자화참회를 하며 봉은사에서 불자가 되었다.

Indian Master Ko's House ('天竺考先生宅' Carved on the Rock)

Chusa's own magnanimous handwriting, young Chusa's powerful energy, calling himself the house of Ko, that is, Buddha from India, whom Buddhists have venerated. It is indeed brilliant. Young spirit on the rocky mountain, Yesan, the sacred land where Buddha lives. Doesn't Dharmakaya stay in only one place?

To live as Buddha in the poetry land

Northwest town of Geumosan, Yesan's guardian mountain

Oseoksan, the Dogosan flat range is the best place

Behind Hwaamsa pine tree

If you go to the forest inspired

With warm hands and lofty spirit

The descendant of Dangun, the progenitor of Korean people, the greatest artist in Korea

Chusa, Buddha of the poetry land, stays

추사의 불이선란도와 난맹첩

예산을 터전으로 난생 처음으로 한 사내에게 폭 빠진 화암사 뒤란으로 산파도 너울이 몰려오는 바다로 뿌옇게 끼는 눈안개가 깨우는 새벽으로 몰래 눈 뜨는 그리운 신의 촉수로

^{*}불이선란도: 추사가 그린 난 그림이다. 화제가 붙어 있지 않아 후일 사람들이 부르길 불이선란도 혹은 부작란도라 불렀다.

^{*}난맹첩: 난 치는 비결을 체득하여 추사가 그린 화첩으로 상·하권이 있다.

Chusa's Painting 'Buriseonllando' and Sketchbook 'Nanmaengcheop'

Born in Yesan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fe

Stuck on a man

To the backyard of Hwaamsa

To the sea where a mountain of a wave

Rolls in

To the dawn which a fog in snow

Wakes up

To the tentacle of dear God that

Secretly opens its eyes



제3장 조선의 회오리바람

Whirlwind in Joseon

조선의 회오리바람

복고주의적이다, 중국 지향의 사대주의적이다, 18세기 조선예술계의 지나친 사실주의적이다, 라는 비평이 없는 건 아니지만 노상 평지에서만 말 달리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예산고을 고택 솟을대문을 잊은 적이 없다. 힘껏 하늘 치받아버리는 것, 눈비바람 휘몰아치면 땅 뿌리라도 갉아 먹을 것,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육신을 징 쳐댈 것, 치열하게 붓 잡을 것, 눈이 안질 떠나지 않도록 미친 듯 독서할 것, 학문 연마에 혼신을 기울일 것, 학예學藝를 하나로 통합할 것, 경학經學에 버금가는 문경門經으로 솟을 것, 영원 세우는 일을 만날 것, 사람을 아끼고 보듬어 키울 것, 고향집 신암 고택의 솟을 대문에 새 솟을 대문 을 세울 것…… 그럴 것이다. 그리할 것이다…… 문도불이文道不二를 주창하는 고택 솟을대문이라. 솟을대문을 지나 솟아오를 것이다…… 그럴 것이다. 나는 조선의 회오리바람이라.

^{*} 문경門經: 추사는 스스로 말하길 이 '문경을 찾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요체'가 된다고 보았다. 가령, 시론의 문경을 두보柱甫임을 역설했는데 그런데도 추사는 두보를 배우라고 하지 않았다. 두보의 시를 배운다고 해서 두보의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두보에 이르는 문경을 따라가면서 차근차근 공부해야 한다고 했다. 즉 당대의 대가들을 배운 다음 명나라, 원나라를 거쳐 비로소 당나라에 이르러 두보의 시를 배울 수 있다고 했다. 그래야 두보를 뛰어넘는 시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추사는 문경이라는 학문하는 법에 따라 조선 사회에 명실상부한 문인화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였다. 당시 조선 사회는 완물상지玩物度走라고 하여 그림을 잡기雜技로 취급했다. 그러나 추사에게 그림은 사부기士夫氣였다. 사부기를 그리는 데 있어 추사는 황솔荒率한 느낌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것인가를 늘 몰두하였다. 이렇듯이 추사는 문경을 학예의 주요한 인자로 인식하였다.

Whirlwind of Joseon

Some people criticize that Joseon art in the 18th century was retroism, China-oriented toadyism, and was overly realistic, but a horse cannot always run on the flat field. I have never forgotten a lofty gate of my birthplace. It is to lift the sky hard, to gnaw even the underground roots when it rains or snows, to spur on itself more, if it feels lonelier, to write calligraphy fiercely, to read a book so hard as not to shake off the sore eyes, to do its best to learn, to integrate literature and art into one, to establish new principles for learning which is comparable to Confucian classics, to found absolute value, to cherish the people, and to set up a new lofty gate for the gate of my birthplace...... I will, I will do it As a lofty gate, I will advocate that 'learning and nirvana are not different'. I will tower over the lofty gate...... I will. I am a whirlwind of Joseon,

해인사 일주문에서

- 추사가 해인사 상량문을 쓰기에 앞서 만나는 격랑

강보에서 보채는 갓난아이 젖 울음, 어린 생명 칭얼거림에 한꺼번에 보이는 팔만 개의 눈알들이 누더기 걸친 육신에 기대어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눈, 더러 워라 팔만대장경이 씻어 흐르는 세속 물줄기들 죄다 어지러워라

무한 방랑의 죄, 부끄러워라 두 손으로 고이 받드는 참회의 내 눈동자

At the Gate Iljumun of Haeinsa

 Chusa in an Ordeal Before Writing to Commemorate the Completion of Temple Haeinsa's Framework

A newborn baby who cries for milk in swaddling clothes. When the delicate life cries peevishly, eighty thousand eyeballs that look at the baby at the same time, leaning on a ragged body. It's dirty, a stream of secular water that the Tripitaka Koreana washes away. It's all chaotic,

Sin of endless wandering, I'm ashamed

My pupils in repentance, receiving carefully with two hands

추사, 합천의 가야산 해인사 중건상량문을 쓰다

그윽이 헤아리건대 대운大素이 널리 덮임에 화택火宅이 서늘한 데로 돌아오고 법월
法月이 겹바퀴가 되매 보찰寶和은 상서가 솟았도다. 삼독三毒을 없애고 삼계=界를 뛰어나니 다시 환희의 하늘을 보고 십덕+德을 나타내고 십문+門을 증명하니길이 견뢰의 땅에 정했구려. 붉은 불통은 양구陽九의 액을 그치고 금속金聚은 대천大千의 빛을 더하도다.

대개 들으니 하나의 대사大事의 인연이 묘용妙用을 허공虛空에 나타내는 것은 법해 法海의 서로 이음이요, 만 가지 행실의 공덕이 진체眞諦를 진찰廛웨에 관통하는 것 은 밀인密印의 서로 전함이라 하였소.

이런 고로 전도顧倒나 감증減增이 없었는데, 어찌 작지作止와 임멸任滅이 있으리까. 칠선七仙은 수승殊勝의 표表를 드날리고, 육조六祖는 비밀의 요결要缺을 부치도다. 광대한 화엄華嚴의 보장實藏이요 현오玄奧한 타라陀羅의 성과聖果로서 난생卵生·태생 胎生·습생濕生·화생化生의 영현聚現하는 바라 가도 없고 양量도 없으며, 일불—佛·이 불二佛·삼불三佛·사불四佛의 주지主持하는 바라 정등正等이요 정각正覺이니, 이는 원 법주圖法珠의 삼매三昧요, 묘잡화(妙樂華)의 일종—宗인 것이다.

무릇 가야산 해인사는 백호白毫가 빛을 보이매 동방은 부동지不動地의 지경이 되고, 금계金醬의 상像을 남겼으니 남국에 무상등無上等의 당幢을 세웠네. 석기釋迦의 성도成道의 장場을 이었으니 산왕山王이 빼어남을 표하고, 대승大乘의 설경說經의 곳과 부합되니 지덕地德이 상서를 드리도다.

옛날 신라에 있어 애장왕哀莊王은 인왕仁王의 보륜實輸을 굴리고, 성목비聖穆妃는 천비天妃의 금경金鏡을 쥐었으며, 홍류紅流에는 팔덕八德의 물이 넘실거리고, 우두牛頭에는 광시廣施의 숲이 우거지도다. 신장神匠을 도리천궁忉利天宮에서 관장하니 엄연한 단전權施의 서상瑞相이요, 원력願力을 극락極樂의 세계에서 넓혀가니 높다란연화蓮華의 보대寶臺로세. 안개가 자욱하고 노을이 빛나니 금승金繩은 상전像殿에 맞대었고, 물결이 황홀하고 구름이 찬란하니 주망珠網은 향성香城에 어울리도다.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은 문자의 선禪을 맺어 권속을 이끌고 자취를 감췄으며, 낭공朗空은 보리菩提의 의義를 설명하니 도량道場을 가려 스승을 찾도다. 종종광種 種光의 속에 분황芬皇 화주火珠의 탑과 멀리 맞서고, 비비상非非相의 곳에 불국佛國 칠보七寶의 못이 마주 비치도다.

여기에 고려시대 옛날 새긴 내전內典의 대장大藏이 있어, 동산東山 북산北山의 부部를 감싸고 창타창박唱吒唱嚩의 소리를 합했으니, 거로佉盧의 신서神書는 현언玄言이 다함이 없고 비니毗尼의 비급秘笈은 백법自法을 마치기 어렵도다. 여여如如한 각후 變後의 비결이요 적적的的한 서래西來의 뜻이로다. 적근赤堇과 휴칠髹漆로써 꾸미고 대하大度와 심첨深簽으로써 바치도다. 주초柱礎의 액液은 단물이 흐르니 찬지鑽紙의 벌들이 꿀을 비지고 집 추녀[屋危]가 더럽힐세라 범패贊明를 외는 새도 날아들지를 않네. 신물神物이 감싸 유지하고 보기實氣가 차 넘치니 진단實且에 있어서는 이러한 한만行漫이 없을진대 장경을 보지 못하면 어찌 많고 귀함을 알쏜가.

더더구나 특수한 선사는 어찰爾씨이 화사하여, 은총의 광영이 선림禪林에 빛나네. 당종唐宗이 지은 성교聖教의 서문序文이며 송제宋帝가 남긴 명산名山의 묵적墨跡일 레. 용장龍章과 봉조鳳藻는 이미 외호射護의 깊은 공을 베풀었고 양승羊乘과 녹거鹿車는 자못 내사內賜의 성전盛典이 거룩하도다. 제기帝機를 돌리자 혜일慧田이 명랑하고 성택聖澤이 거룩할사 법원法源이 맑도다. 시방+ヵ의 첨시瞻視도 이미 높거니와 대중의 귀의歸依도 또한 오래로다.

이해에 미쳐 누그러진 바람이 뭍에서 일자 맹렬한 불꽃이 공중을 덮어 화관華觀과 취원關國은 가련하게도 초토가 되고 천계天界와 용굴龍窟은 다 침회沈灰로 돌아 갔네. 법도 통하지 않는 데가 있으니 청량淸凉의 신력을 힘입을 수 없고 운運도 어쩌다 당하는 수가 있으니 또한 자은整명의 금신金身이 불타도다.

그러나 홀로 기각度關의 책만은 남아, 세상 유지할 기구는 없어지지 않았네. 용수體樹의 구해口海는 파란波瀾이 길이 편안하고 현장玄奘의 성문性門은 관건關鍵이

탈이 없도다.

아마도 희출讓出의 경보警報는 우연이 아닐진대, 도화度化의 조지詔旨가 심히 빛나 도다. 진職을 녹이고 치癡를 달구니 금강金剛의 지염智焰이 활활 타고 사邪를 녹이 고 악을 제거하니 광음光音의 혜망慧芒이 펼치도다.

이 때문에 산과 골짝은 무너지고 벌어져도 행랑에 접한 처마에는 침노하지 못했고, 옥과 돌은 그슬리고 탔지만 능히 집에 넘치는 책은 보존됐으니, 이는 장차 성체聖諦를 현겁現劫에 표본하고 법요法曜를 무방無方에 선포함이라. 비록 여래如來의 장藏을 비우고, 조사祖師의 관關을 깨뜨려도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 존재하며, 단상斷常의 구덩이를 벗어나서 진실真實의 즈음에 올랐으니 어찌 무명無明의 불타는 바가 됐겠는가.

마침내 참회懺悔가 크게 뚜렷하고 재장災障이 따라서 걷히니 공장工匠을 모으매 과 족寒足을 꺼리지 않고 다짐을 발하니 모두 신심信心에 근본하도다.

그래서 허물을 씻고 원망을 맑히고 길이 공을 쌓아 복을 다지니 환화(華의 경계위에 판탕板薄의 서러움을 함께 품고, 기수원祇樹園 안에 회향回向의 소원이 일제히 분발했네. 수錄로 쌓인 청부靑晩와 자패紫貝요 싸라기 모여진 은속銀粟과 금성金屋이며 선녀善女와 신남信男은 물회物貨를 짜개어 힘을 보태고 재관宰官 거사居士는 진보珍寶를 돌려 일을 치르게 하도다.

이에 법기法基를 수리하고 구관舊觀을 인습하여, 진조與照를 퇴운頹運에 돌리니 사라짐에 따라 바로 생기고, 묘원妙園을 휴기寒機에 감아쥐니 잃은 데서 다시 나타나도다. 삼천의 정토淨土를 정돈하고 오백의 보루實樓를 장식하니 자상慈像은 신기를 바라보고 혜로鑄路는 특이를 우러르며 초불初佛과 후불은 일월등명日月燈明과이름을 같이 하고 과인過因과 내인來因은 모두 백천억묘百千億炒를 나타냈도다. 난순欄盾과 당탑幢층은 어울려 섞이고 마노瑪瑙와 거거車果는 두루 고리하여 혹은 원생圓相으로 혹은 승상勝相으로 하니 한 등燈에 이어 천 등이 켜지고, 혹은 수형樹形

같고 혹은 화형華形 같아 피계彼界는 다시 차계此界에 밝도다. 신중神衆은 그 당개幢 蓋를 간직하고 도리關梨는 그 병공瓶율을 안치安置하며 철기와鐵瓦 이끼합[苦園]은 고춘古春이요, 보로寶爐와 향반香盤엔 옛 전篆이로세. 정과正果의 악도를 벗어남을 쾌히 보니 비하자면 서련瑞蓮이 화갱火坑에 솟은 듯하도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기에 육위六億의 노래에 올리놋다.

어기어차 들보의 동에

떡을 던지니 / 兒郎偉抛梁東

동방이라 아축비와 / 東方阿閦鞞

수미의 광묘음과 / 須彌光妙音

금강의 승보살이 / 金剛勝菩薩

가장 사마를 강복시키네 / 最降伏邪魔

어기어차 들보의 남에

떡을 던지니 / 兒郎偉拋梁南

남방이라 허공에 머무른 / 南方虛空住

덕운의 법혜불이로세 / 德雲法慧佛

다음으론 수미등이요 / 次復須爾燈

다음으론 일월등이로세 / 次復日月燈

어기어차 들보의 서에

떡을 던지니 / 兒郎偉拋梁西

서방이라 무량수는 / 西方無量壽

정진한 무외의 행이로세 / 精進無畏行

대광 대명에 미치니 / 及大光大明

해지는 곳을 바로 보았네 / 正觀日沒處

어기어차 들보의 북에

떡을 던지니 / 兒郎偉抛梁北

북방이라 구름이 자재하여 / 北方雲自在

운자재왕과 함께로세 / 雲自在王俱

중생이 자애로운 비호를 받으니 / 衆生蔭慈覆

무심하여 옛것에 애착이 없네 / 無心無着故

어기어차 들보 아래에

떡을 던지니 / 兒郎偉拋梁下

하방이라 명무불과 / 下方名間佛

명광과 다시 또 달마가 / 名光復達摩

사자후를 크게 내치며 / 大放獅子吼

하늘을 떠받아 법당을 세웠네 / 撑天竪法幢

어기어차 들보 위에

印으로'

떡을 던지니 / 兒郎偉抛梁上

상방이라 금단천이 있네 / 上方金團天

향광의 대역을 격차(冒次)한 / 香光大焰冒

무상의 바라수요 / 無上波羅樹

잡색의 보화엄이라 / 襍色寶華嚴

이종 저종의 모든 색상이 다 이곳으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바로 광명해光明海요, 이는 바로 반야해般若海요, 이는 바로 청정해淸淨海요, 이는 바로 묘법해妙法海요, 이는 바로 원각인圓覺印이요, 이는 바로 수릉인首標印이요, 이는 바로 금강인金剛印이요, 이는 바로 법화인法華印이라, 원컨대 길이 이 경계에 머물러, 이 해海에 이 인

고금역사를 통 털어서 보라 이러한 명문이 없도다 다만 놀라울지라 글자마다 추사 혼백이 생생히 살아 있도다

^{*} 추사가 쓴 가야산해인사중건상량문伽倻山海印寺重一建上樑文 전문. 추사가 33세에 해서체의 유려한 필치로 쓴 글이다. 이러한 심오하면서도 찬연한 필치와 문장은 고금을 통털어 과연 이와 필적할 만한 문장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다.

Chusa, Write to Commemorate the Reconstruction of Haeinsa's Framework in Mountain Gaya

Through history of all ages

There has never been such excellent text as this.

What a surprise in each Character

Chusa's soul is vividly alive.

추사, 그리고 추사의 불교학

내 발밑에 물길 뻗어 있다 한 살이 생에 지친 몸짓이 몸부림치는 폐부 가르 며 상처 자국을 관통하는 물살줄기가, 다 죽어도 꿋꿋이, 꼿꼿이 살아남아

몸 갈라 터지면서 기어이 살아남아 살아남아 살아남아서 살아남는 살아가는 불멸의 숙宿. 내 영원 꿈자리

^{*} 추사는 당시에 선문禪門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던 간화선看話禪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선종을 불문의 이단으로 여겼고, 이는 통일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었다. 추사는 간화선을 제창한 대해선사大譽禪師는 화수獨首, 즉 화를 불러오는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달마達磨의 선관禪觀까지도 승가의 아류로 치부하였다. 반면에 추사는 안반수의경安報守意經을 선의 바른 귀결처로 삼아 선풍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참선의 바른 자세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경寫經이나 불경 간행, 염불공덕을 크게 여겼으며 만년에는 봉은사에서 발우공양録孟供養과 자화참회刺火懺悔까지하였던 신행불교의 큰 거사居士였다.

Chusa, and his Buddhist Studies

A waterway is stretched under my feet. The gesture exhausted in life firmly survives upright even after all the water streams through the lung and scars die, struggling,

Even if the skin is chapped, it survives whatever may happen Survives and survives because of surviving to the last Immortal lodging to live in, my eternal dream

정조경이 추사에게 드리는 부언

- 정조경程補慶의 문복도押腹圖

죽을 듯이 만나고 싶음을 참는 어지러움입니다 장년의 한 남자 앞에 부복하여 인사 올리는 모습을 담은 이 정조경의 그림, 일명 문복도는

실상 그림이 아니라 여기 청나라 예술가들의 열망입니다, 조선의 추사, 해동 제일의 통유, 해동제일의 명문가 추사를 보고 싶어 안달이 난 대륙의 거대한 모래폭풍입니다,

흠모가 지나쳐 너무나 보고 싶어서 무한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황홀한 마취입니다

^{*} 다음 그림은 1853년 청나라 문인 정조경(程祖慶·1785~1855)이 추사 김정희(金正喜·1786~1856)에게 보낸 그림이다. "완당阮堂 선생은 내가 비록 아직 그 얼굴을 대하지 못했으나 문장과 학문을 오랫동안 경모해 왔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 보내니 잘못되지 않았다고 여긴다면 수염을 치켜 흔들며 한바탕 웃어주십시오." 그림에 덧붙인 글이다.



청나라 문인 정조경이 김정희에게 그려 보낸 '문복도'(1853년) 관을 쓴 노인이 김정희이고, 손을 공손히 맞잡은 젊은이는 정조경 자신을 가리킨다. '문복도們閱圖'란 제목을 단 이 그림. '문복們腹이란 심신이 만족스러워 배를 쓰다듬는다는 표현이다. 그림에서 추사는 후덕한 대학자의 모습이고 정조경은 배움을 구하는 제자로 보인다. 이 문인화의 작자가 청나라 학자라는 게 중요하다. 더구나 그림을 보낸 정조경은 실제 추사보다 1살 연상이다. 연하의 조선 학자에게 배움을 청하는 청나라 학자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 때 정조경의 나이 68세. 그가 숨지기 2년 전, 추사의 타계 3년 전, 이 동년배 학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가운데서도 국경을 넘나드는 진한 '문인향'을 남겼다.

Cheng Zuqing Adds A Remark for Chusa

- Cheng Zuqing's Painting 'Munbokdo'

It is dizziness to bear a deep yearning.

One person takes a very polite and formal bow to a middle aged man In the Cheng Zuqing's painting, what is known as Munbokdo

In fact, it's not just a picture but the desire of Qing artists then. It is a huge sandstorm of China which shows their earnest wish to see Chusa of Joseon, the erudite scholar, celebrated Chusa.

It's entrancing anesthesia that makes people

Admire him so much as to be completely lunatic

오석산 바위에 새긴 글씨, 시경詩境

시경, 곧 시의 나라 변방이라 오석산 비추는 시경 석문이 앵두봉 아래 병풍바위 휘감아 돈다 스승 옹방강의 손때 묻은 중국 남송麻末 시인 육유陸游 글씨의 탁본* 시의 흥회·흥취를 돋우는 호방한 추사의 시품詩品이 서린 이곳, 예산 구렁목 고을이 해 아래 걸어 다니는 시인이 사는 여긴 조선국 시 나라 경계다

^{*} 현재, 예산군 신암면 오석산 바위에 새겨진 석문石文이다. 이곳에 새긴 시경은 남송시인, 육유陸游(호는 방용, 1125~1210)의 글씨이다. 즉, 추시는 청나라 스승인 옹방강으로부터 송나라의 위대한 민족 시인이었던 육유의 글씨인 이 글의 탁본을 전해 받아서 가문의 원찰인 화암사 뒤편 오석산 바위에 이 글을 새겼다.

^{*} 시품 : 이설異說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당나라 말에 시인 사공도(837~908)가 지은 '이십사시품' 二十四結대을 일컫는다. 시품은 시에 관한 스물네 가지 풍격(風格·직관적이고 상징적인 말로시와 시인에 관한 전체적인 인상을 표현한 것)을 표현한 대표적인 중국의 시학서이다.

Character 'Sigyeong' Carved on Rock of Oseksan

'Sigyeong', the boundary of poetry land
The 'Sigyeong' carved on the stone shines Oseksan
Envelops the screen rock under Aengdu mountaintop's feet.
The rubbing of Lu You's calligraphy
His master Weng Fanggang himself made
Arouses spontaneous poetic emotion
Full of Chusa's magnanimous poetic dignity
Here, Yesan Gooreongmok,
There lives a poet walking under the sun.
This is the boundary of Joseon poetry land,

오숭량의 행서대련

추사 삼부자, 김노경 김정희 김명희 이 세 사람을 소동파 삼부자에 비견한 중국 선비 오승량, 청조淸朝의 국자박사를 지낸 당대의 시인이며 옹방가의 제자인 난설蘭雪이 그의 전심을 올려 펼쳐내는 저 도도한 황하의 붉은 황톳물 생명을 보라

- 완당의 문장력은 이미 절묘한 경지에 올라 있고 글씨는 가히 입신入神에 다 다랐다

경외하는 전심에서 우러나와 쓴 추사 부친의 이조판서를 축하하는 경탄

오숭량이 말하길.

* 난설: 청나라 학자, 오승량의 당호

Wu Songliang's Semicursive Style on Hanging Scroll

Father Kim Nogyeong, two sons Kim Jeonghui and Kim Myeonghui
Chinese scholar Wu Songlian who compared them to Su Dongpo, his father
and brother

A teacher of Qing national academy

A poet of the age and Weng Fanggang's disciple Nanseol

Unfolding in all his mind

Look at the vitaliy of the red muddy water of the profluent yellow sea

Wu Songlian said,

'Wandang's writing skills are already exquisite and his calligrapy has reached the realm of God'

Written wholeheartedly in deep awe

Admiration. He congratulates on the promotion of Chusa's father.

亭 7 後記

- 평양 고구려 성벽의 석각 발견

그렇다면 추사의 운명은 이미 정하여졌다 할 수 있으리라 삼국시대 고구려 성 무너진 성벽 틈바구니에서 발굴한 역사, 이 하나만으로도 금석학의 제일인자로 청나라와 조선국민의 존경받는 학예의 대가로 살 수 있으리라 드넓은 초원과 짙푸른 산하의 녹음 마시며 조선국의 대예술가로서 예술의 역사 써가며 살 수 있으리라 평양 고구려 성벽 석각을 고증해 낸 학자로 얼마든지 평안히 한 생애를 매듭지을 수 있으리라 이미 월성위 궁의 주인에다 지체 높은 고관대작의 맏아들 종 부리며 유유히 예술가와 학자의 삶을 살다 임종할 수 있으리라 굳이 대과에 급제, 굳이 벼슬길 안 나서도 고구려 성벽, 그 유구한 숨결이 천지간 추사를 지켰으리라

Postscript

- A Carved Stone Discovered from Goguryeo Ramparts in Pyongyang

If so, Chusa's fate could already have been determined.

Now that he discovered history from the crevice of collapsed Goguryeo ramparts built in the three kingdoms's period,

As the first epigraphist who made the discovery.

He could have led a life of a great master respected in Qing and Joseon

Breathing in fresh air from wide meadow and nature.

As a great artist of Joseon, he could have led a life of writing the history of art.

As a scholar who ascertained the stone carving of Goguryo ramparts in Pyongyang

He could have finished his life in peace.

As the master of Wolsungwee palace and first son of dignitaries

He could have led a life of an artist and scholar during his life.

Without taking a state examination to start his official career

Goguryeo castle, the eternal breath could have guarded Chusa in the world

고순顧森에게 준 대련

청나라 신하의 직언이 대궐 밖으로 쫓겨나가자 삼십대 중반에 이른 동쪽 나라 조선의 추사가 쓴 정신의 이야기이며 장차 생의 지향점이자 선비세계의 추상極厲, 휘날리는 산정 깃발이다

* 직성유궐하 直聲留闕下 수구만천동 秀句滿天東 곧은 말씀으로 대궐 아래 머무르게 되었지만 빼어난 구절은 하늘 동쪽(조선)에 가득하네'

Present a Hanging Scroll to Gu Chun

To Qing's scholar who was divested of his office
Due to his expostulation,
In the mid-thirties
Chusa in eastern country Joseon wrote
The stories of spirit,
The life goal in the future, and
The virulent world of scholars.
It's a flag on the mountaintop.

과지초당 연못의 충고

과천에 나. 과지초당 안뜰에 작은 연못 있음 유당이 직접 짓고 살던 집 안마당에 사는 연못 있음 훤히 속사람, 속사정 비춰내는 연못임 시골 아저씨인 양 맘씨 좋아 보이는 저 친구가 생기긴 나무꾼에 어리숙해 보여도 실은 거짓말 선수라 서당 근처 기웃거린 이력만으로 손바닥 비벼 산부처 행세하는 모양새가 묻에 훠히 드러남 이를 모르는 이는 산에 들어앉은 허공. 설령 삼천 배 올려 직언해도 곧이들을 리 만무함 면전에선 부복하고 뒤돌아선 험담이라 하여튼 참소와 거짓부렁 일삼고 살다가 무덤 겨들어가걸랑 아이고 제발 좀 화생치 말라 평생 도도한 자존 세워 인격의 불 밝힌 순수하고 순결하며 순전하게 천년학예의 불 밝힌 연못. 고요의 영혼성지에 사는 아지랑이. 나 있는 초당 근처엔 절대 얼씬거리지 말라

^{*} 과지초당: 추사의 생부 김노경이 과천 주암동에 지은 별장. 이 안마당에 연못이 있다. 1837년(추사52세) 3월 30일, 김노경 사망(72세) 후, 추사가 3년간 시묘 살이 하던 곳이다. 또 1852년 8월 13일 (철종3년, 추사67세), 함경도 북청유배에서 돌아온 추사가 1856년 10월 10일, 임종(71세) 시까지 기거하였던 유서 깊은 장소다.

Advice Given by Gwajichodang Pond

There is a small pond in the courtyard of my home 'Gwajichodang in Gwacheon

There lives a pond in the garden of the house that Yoodang built himself to live.

The pond is one that reflects the true nature and the inside story.

That friend who looks good natured like a rural farmer

In fact, an adept at lying, naive as he looks like a woodcutter

Rubs palms together with such a level of education that he would snoop near Seodang.

Acts like a living Buddha, which is well revealed on the pond.

Maybe everyone knows this except the void in a mountain

Who believes him even if he speaks frankly after doing 3,000 bows?

As he would prostrate in the presence and talk behind the back

Anyway, after you lead a habitually slanderous and false life

And then you crawl into the grave, please do not be reincarnated.

Cultivating the character with lifelong lofty self-esteem, and

Lightening literature and art of a thousand of years purely, innocently, and perfectly

The haze living in the pond, the serene sacred place of soul Never come near Chodang where I live.

추사 금석학의 경전

- 예당금석과안록을 펴내다

실사구시實事求是는 추사 생전의 등불, 북한산과 황초령을 샅샅이 뒤져 추사, 마침내 예당금안록을 펴내다

이 날 밤에도 유성이 오석산에 지다

^{*}예당금석과안록禮堂金石過眼錄: 추사가 47세 되던 해에 금석학(金石學·쇠나 돌에 새긴 글귀를 연구하는 학문) 저작 중 하나인 이 책은 북한산과 황초령에 있는 진흥왕비 2기를 분석한 책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 사실에 근거하여 진리나 진상을 연구하는 일. 즉, 추사는 청나라 고증학과의 산두니라였던 스승 완원으로부터 정통적인 고증학적 학문 위에 실용적인 실학사상을 덧붙여 경학의 실천덕목으로 경세치용經世致用을 배웠고, 이를 주창하였다. 이는 곧, 옹방강이 심의의 꽃을 강조하여 추사의 예술을 완성시켰다면, 완원은 실제의 꽃을 강조하여 추사의 사상을 완성시켰다고 볼수 있다. 결국 추사의 금석학은 증조부이신 월성위 김한신을 비롯한 부조섯째의 특이하며 탁월한 가문 내력도 물려받았지만 경사經史, 즉 경서와 사기에 박통하고 금석학에 정심構深하였던 스승 완원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Chusa's Epigraphic Bible

- Publish Yedang Geumseokkwaallok

Practical learning was a lamp in Chusa's life,

After scouring Bukhan mount and Hwangchoryeong road

Chusa finally published Yedang Geumseokkwaallok

As usual, shooting stars fell into Oseoksan

해란서옥 이집咳蘭書屋二集

시집을 일러, 책의 집, 서옥이라 심층 의식나래들이 울부짖고 흐느껴 울다가 미쳐 버리는 글 집, 저 고단한 광란의 환희와 무덤 이상의 고뇌를 글 집이라 청나라 연경의 시인 반증수潘曾經의 시집 표제를 쓴 계림 김 추사의 글씨를 뵈옵자 추사의 글을 흠모하던 청국 시인 반증수는 그날 밤, 글 받아든 날 시집을 품에 껴안고는 밤새 통음하다 시선을 만났다오

^{*} 시선詩仙 : 두보杜甫를 시성詩聖이라 일컫는데 비하여, 시선詩仙은 이백李白의 별명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뛰어난 시의 신선이라는 뜻이다.

The Second Poetry Book Haeranseook

The poetry book called 'Seook' meaning a house for books

The house where the wings of deep consciousness wail, sob and

Finally go crazy, and where there are the weary,

Frenzied rapture and more agony than the grave.

The cover characters of the poetry book that Qing poet Pan Zengshou wrote

In seeing Guilim Kim Jeonghui's handwriting

The Qing poet, who adored Chusa's writing,

Embraced the poetry book in his arms on that night,

Communicated each other all night and met a born poet,

청나라, 등전밀鄧傳密의 서신

추사의 부친 김노경을 만난 뒤 그 인품에 반한 등전밀, 그는 청나라에서 전서와 예서의 제일인자 등석여의 이들이다 선친의 묘지명을 김노경에게 부탁하면서 간절히 추사의 글씨를 요구하는 서신을 동봉하다

- 아드님 추사 학사를 이미 홈모하고 우러른 지 오래 되나 아직 만나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망령되게도 직접 쓴 글씨를 얻고 싶으니, 시 한 수, 글 하나를 보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황공하고 또 황공할 뿐입니다.*

청나라의 수도 연경에 울려 퍼지는 대고大鼓여, 빛나라, 청나라에서조차 앙모한 대예술가, 추사의 학예여

^{*} 등전밀鄧傳密: 등전밀(1795~1870) 청나라 학자.

^{*} 등전밀의 서신 일부, 인용문.

Letter from Deng Chuanmi of Qing

Deng Chunanmi charmed by Chusa's father Kim Nogyeong's personality.

He is a son of Deng Shiru, Qing's foremost authority on seal script and clerical script

All anxious for getting calligraphy for his late father's epitaph Deng sends a letter to Kim Nogyeong.

— I have admired your son for a long time, but I have not yet had a chance to meet with him. Foolishly, I want to get his calligraphy. If possible, could you send me a poem or good wording he writes. I am deeply grateful and so sorry.

The big booming beat echoing around Qing capital.

A great artist that Qing also respected. Chusa's literature and art, shine!

눌인화人 조광진曹匡振을 만나다

- 추사의 붓글씨 교유

평서지방에 부는 편서풍에 쇠가 녹고 구부러지다 '쇠를 구부리고 철이 녹는 듯한' 경지, 추사, 평양 최고의 서예가 눌인을 평양 부벽루에서 만나다 모름지기 정신은 정신을 섬겨 알아보는 법, '청아하고 기발함이 압록강 동쪽에서는 일찍이 보지 못한 바'라 추사가 그리 평한 평양의 필재筆才, 눌인 조광진, 때로 한 번 만남만으로 생은 평생 뜨거울 수 있는가 추사는 눌인의 획에서 크나큰 공명을 느껴 붓글씨에서 혼 불의 예술가교라는 새 교각을 놓다

^{*} 조광진曹匡振: 본관은 용담龍潭, 자는 정보正前, 호는 눌인訥人, 평양에 살았고 벼슬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신위申緯와 김정희가 크게 추천하였는데, 김정희는 눌인을 평하길, "창아기발蒼雅奇拔하고 괴위정특怪賴挺持하니 압록강 이동에 일찍이 없었다."고 말 하였다. 눌인은 이삼만, 추사와 함께 조선후기 3대 명필로 꼽힌다.

An Encounter with Nulin Jo Kwangjin

- Social Intercourse by Calligraphy

The westerly wind blowing over to Pyeonseo province melts and bends iron

'The stage in which iron melts and bends'

Chusa encounters the best calligrapher Nulin of Pyongyang at the Pubyok Pavilion

It is natural that noble spirit recognizes another noble spirit and respects each other,

'Purity and novelty are unparalleled in the east side of Amnok river', Chusa comments

On the characters of Nulin Jo Kwangjin, a distinguished calligrapher of Pyongyang

Sometimes an encounter can make the life permanently hot?

Chusa received a great impression from Nulin's stroke

Consequently, he built a new bridge, so called soul's art bridge, in calligraphy.

추사, 다산茶山의 편지 받다

신선의 풍채나 도사의 골격 같은 수선화를 추사가 이제 대동강 가 아문에서 옮기었다오 외딴 마을 동떨어진 골짝에서는 보기 드문 것이라서 일찍이 없었던 것 얻었기에 다투어 떠들썩하다 어린 손자는 처음으로 억센 부추 잎에 비유하더니 어린 여종은 도리어 일찍 싹튼 마늘 싹이라며 놀라다*

다신이 쓴 이 시편의 제목은 '수선화'이다 부제로는, '늦가을에 향각에서 수선화 한 그루를 부쳐 왔는데 그 화분은 고려 청자였다'

중국에서 귀경하는 사신이 선물한 수선화를 고려청자에 심어 다산에게 선물하는 추사의 이 선경을 보라 오래 묵은 향기처럼 다산에게 밀려온 기쁨이 유배지에 짙게 드리워진 거미줄 아픔을 거둬내다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호. 다산이 추사의 수선화 화분 선물을 받고 쓴 시편.

The Letter from Dasan

The daffodil with a mountain god's appearance and an ascetic' flame

Chusa transplanted from the public office at Daedong river.

As it was rare in a remote village and

Was not there before, it set the whole town boisterous

The little grandson likened it to the rugged leek leaves first, and

The young maiden was surprised because considering it as early garlic shoots

'Daffodil' is the title of this poem Dasan wrote

Its subtitle, 'A temple sent a daffodil in the late autumn, which was planted in Goryeo celadon'

The daffodil that an envoy back to Hanyang from China presented

Look at enchanting Chusa, he planted it in Goryeon celadon and presented
to Dasan again

Pleasure flooded into Dasan like an old fragrance, and Took away the thick cobwebbed pain in the place of exile

스승 완원이 보낸 편지문과 황청경해皇淸經解

- 황청경해는 5년이란 긴 세월이 걸려 이제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수록된 것은 청나라 유학자들이 경학에 관해 해설한 180여 종으로 모두 1,400권이나 됩니다. 책의 권질이 아주 복잡하고 인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판이 광주廣州에 있으니 북경에서 5,000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갖고 북경에 온다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목록 1책을 보내오니 각하께서 이를 살펴보시고 곧 그 대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이 장래 북경에 도착하면 다시 보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황청경해는 추사의 은사인 완원이 광동廣東 총독일 때, 학해당學海堂을 짓고 청나라 경학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은 무자년(1823년)에 188여 종, 360책, 1,408권이란 분량으로 완성되는데 북경에서 병마사 벼슬을 하는 완원의 아들 완상생이 정성을 다하여 조선의 추사에게 쓴 편지글처럼 황청경해는 보통의 책이 아니다. 광동에서 한양까지 만 리 길에다 수레에 실어온 기간만 2년, 학 예의 열정을 만천하에 널리 선포하게 되는 이 엄청난 편찬의 발길을 인도하여 이 엄청난 책을 운반하여 추사에게 전하여 준 이는 제자 이상적이다 찬연하도 다. 위대한 정신의 불씨여, 아름답도다. 사제지간의 굳건한 신뢰여, 영원하도 다. 새 생명 탄생이여.

^{*} 황청경해皇淸經解: 중국 청나라의 완원元元이 그의 문인 엄걸嚴杰 등과 함께 청나라 학자 73인의 경전해설에 관한 서적을 모아 편찬한 책. 청나라 고전 연구의 총서로 1825~1829년에 출판되었고 총1,408권이다. 이 편지는 완원의 아들 완상생이 추사의 요구로 추사에게 답신한 편지글이며, 이 대저서를 유발하여 추사에게 전하여 준 이는 추사의 제자인 우선 이상적이다.

A Letter and Books 'Huang-qing-jing-jie' from Master Ruan Yuan

– I heard that the compilation 'Huang-qing-jing-jie' was completed in 5 years. It consists of 1400 books of 180 kinds and covers Qing scholars' comments on Confucian classics. The quality of the books is very complicating, so it is not easy to print. Also, the printing blocks are in Guangzhou, 5,000 ri away from Beijing here. It is that difficult for them to come to Beijing. First, I will send you a book for you to have a general idea soon. If other books arrive in Beijing in the future, I will send them again.

Chusa's master Ruan Yuan compiled books called 'Huang-qing-jing-jie' to integrate Confucian classics at school 'Xue-hai-tang' founded by himself while a Guangdong governor. The books that were completed in 1823 consist of around 188 kinds, 360 documents, 1408 books. As his son Ruan Changsheng who was an official in Beijing mentioned sincerely in the letter written to Chusa, the compilation was more than a compilation. It took two years to be delivered to Hanyang from Guangdong by baggage carts. It was Lee Sangjeok who delivered to Chusa the tremendous compilation which shows off the passion for learning. How brilliant! Embers of Great Spirit, you are so beautiful. The strong confidence between master and disciple is eternal. The birth of a new life!

추사의 제자들

용의 목덜미에 붉은 빛 뿌리며 유성 흐르라 어디서 심장이 빠져나와 가다. 쉼 없이 심장 흘러가라

청나라 연경은 온통 추사의 별들, 연경 학자들과 수수한 서신, 책, 탁본, 인 삼은 모두 추사의 꿈들, 새벽별 반짝이는 서신에 동봉하는 추사의 무수한 입김 들이 모이다, 핏줄기가 끌어올리는 은하수, 유장환, 허련, 이상적, 김검……, 형용은 사치, 한겨울철 얼어붙은 얼음 하늘 가로질러 뜨거운 불가슴의 역사, 조선 추사의 광기 빛나다

오백년 조선을 삼키는 하늘바다 밤파도야, 몰아치라 솟구쳐 쳐 올라와 하여름 밤마다 은하수 무리 흘러가라

Chusa's Disciples

Meteor, flow sprinkling the red light on the nape of the dragon Heart, flow incessantly without sticking out.

The Qing Beijing is filled with the stars of Chusa. Plain letters with Beijing scholars, books, rubbing, ginseng are all Chusa's hopes. Chusa's myriad breath fills the letter glittering with stars at dawn. The blood vessel draws up galaxy, Yoo Janghwan, Heoryeon, Lee Sangjek, Kim Gen.... Mentioning one by one is luxury. The history of hot fire heart, Chusa's madness shines across the ice sky frozen in midwinter,

Wave of night sky, rage, swallowing Joseon of five hundred years. Spurt to flow as galaxy every midsummer night,

추사의 웃음

아는 사람만 겪어본 이만 아는 기쁜 일 하나 사랑하는 제자가 일취월장하는 걸 보는 일 아침햇살에 눈부셔 쉬지 않고 온몸 전율하는 이 웃음은 오직 아는 이만 아는 기이한 비밀

^{*}추사는 만년에 들어 제자들이 일취월장하는 걸 보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Chusa's Laughter

Something pleasant

That only those who know and

Experience feel

Is to see

The loving disciples' learning

Improve very quickly

Dazzled with morning sun

Thrilling without control

The laugher

The only those who experience feel,

The curious secret

섭지선의 편지

- 이 편지가 석묵서루 진기珍奇의 산일散逸을 알리다

너무나 감미로운 설렘 석무서루의 장엄한 시, 서, 화, 금석문, 책들이여 청조 제일의 대학자, 스승 옹방강이 일평생 수집해 놓은 석묵서루의 진기 수만 점이여 하필이면 스승의 손자 손에 거덜났다는 날벼락 편지여 편히 쉬시라, 진기들이여 모든 삶의 행태란 모두 사라져 버리는 일 말고 남아 있는 게 뭐 있소

A Letter from Ye Zhishen

- Notify the Loss of the Precious Works

So sweet thrills of butterflies.

In the study 'Seongmukseoru'

Majestic books of poetry, painting, calligraphy, and inscriptions.

Tens of thousands of rare and precious works

That the first scholar in the Qing dynasty

Master Weng Fanggang had collected in his life.

Informing that his grandson ruined them of all people

The unexpected letter.

Take an easy, Precious Collection.

Life is

To perish inevitably

What is left?

고택의 꿈 물때

- 예안이씨의 꿈

날카로운 칼날 꽂는 아수라 현장

뒷산 숲이 사라지고 하늘엔 흙먼지 자욱하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듯 격한 통증에 온몸이 무너져 주저앉는 흙 담벼락에 스며들다 순간이다, 지상의 형체는 일순 온데간데없고 여인의 생이 무너져 내리다 오랏줄에 꽁꽁 묶여 끌려가는지아비 곁으로 뿌연 연기가 솟구치고 일순, 얼굴 내비치는 시아버지의 환영이 눈빛 그윽하게 내려다보다, 살아서 다시 재회할 것인가, 저승길 열고 시아버지께서 혹여 오신 것인가 상투 풀어헤치고 압송되어가는 추사, 남편 추사의 모습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정작 예안이씨 자신은 아지랑이도 아닌 운무의 허파 속으로 가물가물 사라지며 내내 종적을 감추는 꿈속에서.

눈물 말라버려 혼신조차 헛간 바람벽에 혼절한 무혼굿을 펼치는 생이별의 물때 Water Deposit in Old Family House's Dream

- Yean Lee's Dream

A sharp blade

Stabs the absolute mayhem

The mountain behind the house disappeared and a cloud of thick dust rose in the air. Due to heavy pain that was like flesh rotted, the whole body soaked into the mud wall sinking. In a moment, images on the ground vanished into thin air, and her life collapsed. There was a puff of smoke beside him when her husband was taken, tied up tight. At that time, apparition of her father-in-law appeared and looked at her with a deep loving gaze. Did it mean for us to meet alive again? Did father happen to open the door of the underworld to come? Chusa taken away with his top knot untied. Even though her husband was standing before her, she herself was disappearing flickeringly and finally vanished completely into the lung of a fog, not haze in her dream,

Dried tears

Even soul and body

On the shed wall

Perform an exorcise to faint

The water deposit of a lifelong parting

노완老阮

진눈깨비 흩날리다 내 마음 젖어든다 여기가 어디인가 눈동자 동공이 없다 삶 떠난 마을이다 늙어터진 완당이다

* 노완 : 추사가 직접 스스로를 일러 지은 당호

Nohwan

It's sleeting
My heart is wetted with it.
Where am I?
The eyes without pupils
The lifeless village
The ever so old Wandang



제4장 조선의 자궁

Womb of Joseon

조선의 자궁

고운 여인들 꿈속의 꿈길인가 용산 석정에 몸 던지는 별무리 촘촘 박힌 새벽하늘

사라져 간 목숨들 죄다 살아나 은빛아침 내미는 미쁜 음성으로 두근두근 첫사랑 심장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통증,

삶에 이보다 더한 신비 있나 눈물샘 터트리는 조선의 자궁

Womb of Joseon

Is it a dream pretty women have?

Throwing itself into the stone well in Yongsan

Dawn sky jeweled with stars

All the lives that ceased to exist revive,
With reliable voice of the silvery morning
In the heart of my first love palpitating

The pain of loving you

Is there a greater mystery than this in life?

Joseon's womb making lachrymal burst out into tears

귤중옥橘中屋

탱자나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천하는 이를 일러 위리안치圍籬安置라 하나 풍광이 키운 흰 꽃잎 만발한 집에서 살았다 나는 하얗게 핀 귤꽃 만개한 안뜰에서 나를 떠나 세상에서 멀어져 스스로를 정화하기 시작한 거다 참 실학 정신이 내 뱃속에서 꽃 피고 참 인격 눈매는 귤나무 가지 끝에서 열매 맺는다 험난한 가시울타리의 연찬研鑽, 갈고 닦음이야 평생의 업보라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엄격한 학문 틀 거리 삼아 남들은 조롱하나 묵언정진, 귤꽃향기 진동하는 기쁨이 내 안에 살고 있다 여기서 나는 깨끗한 생을 배우다

^{*} 귤중옥崎中屋 : 돌과 바람의 땅, 제주도를 아우르다시피 한 귤나무 밭에 둘러싸여 탱자나무 울타리 안에서 위리안치 된 제주도 대정현마을 유배지를 추사는 스스로 이름 하길 '귤중옥'이라 명명하다. 귤나무로 만들어진 감옥이라는 뜻이다.

A Prison Enclosed by the Orange Trees

I was not put in a prison enclosed by trifoliolate orange trees
People called it the house of exile, yet
In a house full of white flowers that winds and light grew, I lived
In the courtyard filled with white mandarine flowers
Keeping away from the world, I began to purify myself
The true spirit of Practical learning blossoms in my belly,
The sharp eyes of true character produced fruit on the branch edge
Hard study in a thorn fence
Hard work and self-discipline are my lifelong karma.
Having Practical learning be grounds for his strick study
I disciplined myself in silence though people ridiculed me,
The pleasure filled with the scent of mandarin flower is in me
I learn a pure life here

남원을 지나며 그린 모질도耄耋圖

표독스런 눈이 쌓아올린 산마루인가 주둥이 검다 눈썹 치켜뜨고 힘찬 꼬리 말아 몸통 덮다 형조참판 재직 중에 동지부사를 명받은 지 불과 수삼 일만에 참혹한 참독緣毒을 만나 선친이 사사당하는 치욕 겪네 형구刑具 채워진 몸에 유배의 곤욕을 당하니 모질고 모질다 죄 없이 아무 죄 없이 꽁꽁 옭혀, 죄인으로 옭혀 일흔 살 노인[蹇]이든, 여든 살 노인[臺]이든 일거에 모조리 도륙당하여 살점 저미는 죽음 유배 길의 나, 벗, 권돈인이여, 보게나 나요, 이 그림이 나요, 는 치켜뜬 나요

^{*}모질도: 추사의 그림, 추사는 유배지인 제주도를 향하여 가다가 남원을 지나면서 조인영, 훗날 우의정이 되어 추국장에서 추사가 장살될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 대왕대비에게 감사滅死를 청하여 추사를 사지에서 구하여 준 절친한 친구, 조인영과 더불어 매일 만나서 학예를 논하던 권돈인, 훗날 영의정에 오르는 절친한 벗 권돈인에게 이 모질도라는 고양이 그림을 그려 보냈다.

Paint 'Mojildo' Passing by Namwon

Is it a ridge built up by the ferocious eyes?

The snout is black. Raising its eyebrows

A strong tail curled at the end covers its body

While in ministerial rank, he underwent a terrible ordeal

In 3 days after he was appointed a vice-envoy, and

Suffered disgrace that poison was ordered on his father as a death penalty

Wearing the instruments of torture, painfully, he was exiled

How harsh and severe it was. Being unjustly blamed

Though not committing a crime, he was totally entrapped into a criminal

Whether one was 70 years old or 80 years old

Everyone involved was slaughtered at once

I, on the deadly exile path

Kwan Donin, my friend, look at this

It's me. This picture is me. It's me, raising my eyebrows

탱자나무 가시울타리의 말

들어라, 가시가 토해내는 말 들어라
가시만이 친구, 밤낮 가시울타리 말 들어라
들어라 가시가 토해내는 말 들어라, 가시다
생은 가시울타리다, 코앞에서 광휘의 죽음을 부르는 가시울타리다
가시다, 가시울타리,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가시다
가시울타리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
학예제일주의의 사내, 오만한 사내여
하늘 찌르는 자의식과 드높은 자존감의 사내여
운명의 대장장이가 쳐대는 쇠망치질에 넋 나간 사내여
무쇠솥 뜨거운 열기에 단단한 낟알 익어가
어느덧 구월 단풍 물드는데
목숨 길에 두레박줄 길게 매어 고요히 해저의 품에 안기라
죽음이 삶을 능가하는 이 또렷한 이치를 들어라
들어라, 가시가 토해내는 말 들어라

Orange Thorn Fence's Words

Listen, hear what the thorn speaks plainly

The thorn is the only buddy and day and night, hear what the thorn fence speaks plainly.

Listen to what the thorn speaks plainly. A thorn is,

A thorn fence is life. It is a thorn fence that summons the death of brilliance just ahead of you.

A thorn is, a thorn fence is a thorn while sitting or standing.

The sunlight entering between the thorn fence,

A man of literature and art first. An arrogant man

A man with sky-high self-consciousness and lofty self-esteem

A man who was absent minded when a blacksmith of fate hammered

Grains of rice are cooked in hot iron pot

The leaves already turn red and yellow in September

Hanging a way to survive from a long well rope, be quiet in the bosom of the deep sea.

Listen to the clear logic that death exceeds life.

Listen, hear what thorns speak plainly

대정현 벙어리일망정

- 유배지에 당도하자마자 제주 선비들이 제자 되기를 자청하다

제주도 위리안치 첫날부터다 제자를 자청하여 제주 사내들 몰려들고 불, 추 사는 불을 만나다, 쇠를 녹이는 불의 열기에 제주고을 정주간 밥솥 낟알이 익 을 때. 허드렛일하며 숲 죽여 살아온 제주 대정현 벗어리도 동석하다

입 찢어 목젖 깊이 숨겨둔 한 말을 꺼내려 일 년이든 백 년이든 타올라 화염 토해내며 불타올라 내가 나에게 하는 책망은 희열, 나를 미치게 하는 피돌기의 함성을 듣고야 말지니 폐허여 오라, 칼날 두렵지 않으니 죽을 시간 갈망하라, 즐거우니 황홀한 몽정의 밤 태우며 마침내 말하라 들불, 스스로 울어 뜨겁지 않으랴 큰 고요의 밑바닥에 가라앉은 나는 벙어리

^{*}추사의 제주도 유배가 시작됨과 동시 추사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제주 선비들이 몰려들었고, 추사는 이들을 숭앙崇仰하며 경학과 시·서·화를 가르쳤다.

Even the Dumb Living in Daejeonghyun

- Jeju Scholars Volunteer for a Disciple on his Arriving at the Place of Exile

Since the first day after he was exiled to Jeju, Jeju men have gathered around to be his disciple. Fire, Chusa meets fire. While the grains of rice in a pot are cooked by fire heat that melts iron, the dump man who has soundlessly lived in Daejeonghyen, doing chores, sits together.

To take out one word hidden in a deep throat, after tearing the mouth

It blazes up for a year or a hundred

It blazes up vomiting flames

That I reproach myself is a joy.

I'll never fail to listen to the roar of the blood circulation driving me crazy.

Come, Ruins, I am not afraid of the knife blade

Be eager for time to die, it's joyful.

Finally I'll say, spending a passionate night with a wet dream.

Field fire, isn't it hot to cry itself?

I'm dumb, sinking in an abyss

서까래 지팡이 삼아

- 추사, 위리안치 된 후 첫날밤의 소회

서까래 몇 개가 다시 또 몸을 눕혔소. 겨우 지붕을 떠받치고 있다가 지난밤에 무너진 지붕 뼈들이 오른쪽 어깨를 때려 겨우 청한 잠을 깨우고 말았다오. 극심한 어깨 통증의 향저에 머무르는 얼굴, 내 누워있는 한 평이 이리 넓어 깨어나 하릴 없이 방 모퉁이 풀무불 피우고 있소 언젠가는 꽃이 필거요, 얼굴 볼 테요 다 타버려 아무 흔적 없더라도 나 이제 한 사람만 섬겨가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다 혼절한 그 이상으로 나도 예산을 부르다 그리, 그리로 걸어가는 길이라면 이글거리는 불 이궁이에서 걸어 나와 그리운 이 계시는 예산에 작은 서까래 지팡이 삼아 기필코 갈 거요

^{*} 추사는 추국현장에서 죽음에 필적할 만한 곤장을 맞아 상한 심신으로 제주도로 유배된다. 이후에 유배지에서 오로지 아내인 예안이씨를 일편단심 그리워하였고, 예안이씨의 사후에도 일체 다른 여인을 들이지 않고 생을 마쳤다. 이는 당시 조선시대 고관대작이라는 사대부의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일이었다.

Leaning on a Rafter instead of a Cane

- Thoughts on the First Night after Being Exiled

Several rafters laid down their bodies.

Narrowly supporting a roof,

Its boards collapsed on my right shoulder last night, and

Woke me up, just falling asleep.

Extreme pain of the shoulder brought a face in my hometown to my mind.

One pyeong which is large for me to lie

That I'm idly building a fire blowing with the bellows in the corner of the room

Someday flowers will come out and meet you.

Although I'm burnt out without a trace

As a person devoted to only you

I will cry for Yesan far more than you shouted at me until fainting

If there is a path over there

Walking out of the fiery furnace

I will go to Yesan where you are

Leaning on a rafter instead of a cane come what may.

몽당붓의 흥회

어떤 때는 일곱 달 걸려 받는 일용품 서울 장동 월성위궁에서, 혹은 예산에서 온 음식들이 일곱 달 동안 남아 있을 리 없다 빠르면 두어 달 걸리기도 하지만 조기젓, 장볶이, 미어微魚와 산포散脯를 빼고 모두 상하다 약식과 인절미가 검푸른 돌덩이로 변하다 썩었지만 음식 참 맛나다 힘겹지만 몽당붓은 제 흥회興會 겨워 붓의 매무새인가 그대의 눈매 참 곱다

^{*} 홍회興會: 홍회는 시론의 한 인식이다. 작가의 정신과 함축과 여운의 미를 추구하는 신운설輔賦 을 주창한 청나라의 왕사정王土前이 그의 시론을 표방하길, '무릇 시도誌道에는 근저根柢, 즉 학문에 근원하고, 홍회興會, 즉 성정에서 발하는 것이 있다'고 한 말에서 유래되었다. 추사는 고금의 시론 을 연구 축약하였고 특히 이 홍회를 자신의 학예學藝 정립의 주요부분으로 인식하였다.

Spontaneous Emotional Outburst of a Stubby Brush

It sometimes takes seven months for daily necessities to be delivered.

The food from Wolsungwee palace in Jangdong, Seoul, or Yesan

Cannot be normally left for seven months.

They can be delivered within around two months at the earliest, yet

Except salted yellow corvina, bokkem jang, little fish, and beef jerky, all the other food is spoiled.

Yakbab and injeolmi turn into a dark blue stone.

Even if they are rotten, they are so delicious.

Even in a heavy life, the stubby brush amuses itself with spontaneous emotion!

Are they looks of the bursh? Your eyes are so lovely.

^{*}bokkem jang: stir-fired red chili paste with ground beef

^{*}Yakbab: flavored glutinous rice mixed with honey, dates, chestnuts, etc.

^{*} injeolmi: Korean traditional rice cake made of the glutinous rice and coated with bean flour

우록정麀鹿錠

안질 걸린 눈이라
대낮에도 시야가 흐릿하다
자주 넘어져
여기저기 시퍼렇게 든 피멍들이
저 오작교 건너
내 마음 샛별로 뜨다
부디 나를 생각하셔서 쾌차하시라
녹용 달여 빚은
우록정 드시라
나를 울게 만드는 이여

^{*} 우록정 : 몸져누웠던 추사의 아내 예안이씨가 복용하던 약 이름, 추사는 사랑하는 예안이씨에게 보내는 편지글에서 이 우록정을 언급하며 글을 써 보냈다.

Urokijeong

Sore eyes

Blurs my view even at a bright day.

Because of frequent falls

Bruises appearing all over the body

Across bridge Ojakgyo

Rise as the morning star in me.

Please get well again, thinking of me.

Made by boiling deer antlers

Take the urokijeong

You who make me cry.

^{*}Urokijeong: medicine that Chusa's wife in sick took

^{*}Ojakgyo Bridge: It refers to the bridge that birds make once a year to connect the male and female main characters in Korean traditional fairy tale,

저승재회를 소망하오며

- 아내 예안이씨의 유언

그 짧고 깊은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신 뒷모습에 실신한 그 밤 뒤로 가절히 한 번만이라도 뵙길 소위하였습니다 병 깊어 저승길 코앞에 이르러 눈을,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유배지, 그 험지에다 지아빌 홀로 두고 어찌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낳아드리지 못한 자손이나 다행히 상우와 상무가 있어 후사를 맡깁니다 우리 가문 아낙들은 워낙 단명했습니다 제 명은 그래도 긴 편입니다 아이 낳지 못한 죄 책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부부 간 공경이 제일이라 하셨지요 조석으로 저를 높여주시고 늘 극진히 대하여 주신 보살핌에 실로 감읍합니다 머잖아 한양 궁에 회궁하실 겝니다 저의 죽음에 과도히 슬퍼하지 마시고 꿋꿋하소서 내세에서 우리 재회하길 빌고 빌며 소첩 생각은 그만 얼른 잊으시고 부디 경주김문 어른으로 옥체보중하소서

^{*}예안이씨는1842년11월13일, 55세에 운명하여 예산고택 옆에 안장되었고, 후일 추사 영면 시에 첫째 부인이었던 한산이씨와 함께 추사와 합장되었다.

Wishing to Meet in the Afterlife

- Wife Yean Lee's Will

It's a short but deep midsummer night.

Since I fainted at seeing you taken, tied up

I've sincerely hoped to see you just once more.

The unseen world is before my very eyes due to a serious disease, but

I cannot bear to leave you in exile. How dare can I

Close my eyes, leaving you alone in a rough place?

Though I didn't produce offspring for you,

Fortunately, there are Sangwoo and Sangmoo to carry on your name.

The women from my family generally tend to die young.

Compared to them, I lived long

Not blaming me for having a kid

You always said mutual respect is vital for a couple

You showed your respect to me all the time.

I'm moved to tears for your kind care

Before long, you will be reinstated in your post in Hanyang

Don't grieve for me too much after I die and be strong.

Praying over and over that we'll meet again in the afterlife

Forget me as soon as possible, and

Please take care of yourself as a patriarch of Gyeongju Kim Moon family branch.

통곡의 제문祭文

'임인년(王寅年 1842) 11월 13일 정사TE에 예신禮山의 묘막墓幕에서 부인이 임종臨終했으나, 부고計告는 다음달 15일 저녁에야 비로소 바다 건너에 전해져 남편 김정희는 상복喪服을 갖추고 슬피 통곡痛寒한다. 살아서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진 것을 슬퍼하고 영원히 간 길을 쫓을 수 없음이 뼈에 사무쳐서, 몇 줄 글을 엮어 집으로 보낸다…

- 아아! 나는 형틀이 앞에 있고 큰 고개와 큰 바다가 뒤를 따를 적에도 일찍이 내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부인의 상을 당해서는 놀라고 울렁거리고 얼이빠지고 혼이 달아나서 아무리 마음을 붙들어 매자 해도 길이 없으니 이는 어인까닭인지요?

'아아! 무릇 사람이 다 죽어갈망정 유독 부인만은 죽어서는 안 될 처지가 아니겠소. 죽어서는 안 될 처지인데도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지극한 슬픔을 머금고 더 없는 원한을 품어서 장차 뿜으면 무지개가 되고 맺히면 우박이 되어 족히 남편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겠기에 형틀보다도, 큰 고개와 큰 바다보다도 더욱 더심했던 게 아니겠소

예전에 나는 희롱조로 말하기를, "부인이 만약 죽는다면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도리어 낫지 않겠소?"라고 했더니 부인은 이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자 크게 놀라 곧장 귀를 가리고 멀리 달아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요. 이는 진실로 세속의 부녀들이 크게 꺼리는 대목이지만 그 실상을 따져보면 이와 같을지니 내 말이 다희롱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었소.

지금 끝내 부인이 먼저 죽고 말았으니 먼저 죽어가는 것이 무엇이 유쾌하고 만족스러워 나로 하여금 두 눈만 뻔히 뜨고 홀로 살게 한단 말이오. 푸른 바다와 같이 긴 하늘과 같이 나의 한은 다함이 없을 따름이외다.

- 임인년(1842) 12월, 추사가 쓴 ⟨부인 예안 이씨 애서문⟩ 전문

형틀에 올리는 순간 장살杖殺이 예고되었다. 대사헌 한 사람. 승지 한 사람이 이미 그렇게 죽었다. 바로 그 뒤를 이어 추사 차례였다 추사 역시 장살될 터. 어느 누구도 추사의 장살을 의심하는 이 없다. '나는 형틀 앞에 있고'는 죽음을 목전에 둔 일. '큰 고개'와 '큰 바다'는 전라도 숲과 제주바다를 이름. 둘 다 각각 사지死地를 벗어남을 적시한 말이나 버선발로 예산에서 천안까지 형구形軀를 뒤따르며 가녀림 몸 지쳐 쓰러져 일어나길 반복하며 울던 아내가 먼저 세상음 뜰 줄은 아니, 내 곁을 떠날 줄은 아아아 꿈엔들. 아아아 꿈엔들 짐작이나 하였으라 막막하고 아득하여라 천지가 사라지고 내가, 내가 사라지고 있다 머리칼 쥐어뜯어 통곡하다 자세 곧추 앉는다 통곡으로 쓴 애서문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부모 잃고 아내마저 세상 뜨면 더 이상의 나는 없다. 내가 없으니 이름도 없다 누구도 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아내의 죽음은 남편의 죄, 내 죄는 치유불능, 내 동공을 파내는 고분지통의 허망한 울림. 아아, 장차 저승에서나마 어찌 대죄를 속죄하랴

*추사는 예안이씨의 위패를 세워놓고 상복을 입은 채 절을 올리며 심히 통곡하였고 슬픔에 겨워 예 안이씨를 애타게 그리는 애도神는시를 지었다. *고분지통鼓諡之痛:동이를 두드리는 쓰라림을 뜻함. 도가의 '장자'와 '혜자' 사이의 고사에서에서 유
래된 말로 아내가 죽은 슬픔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A Wailing Funeral Oration

In being tied on the rack, it was already expected to be fogged to death

An inspector general and a royal secretary died in that manner.

Following them, Chusa's turn has come now. No one doubt

Chusa will be fogged to death.

'Being by the rack' means the imminent death.

'A big hill' and 'a large sea' refer to Jeonlado's forest and Jeju sea respectively, which means

Escaping from the jaws of death.

However, following me in her stocking feet from Yesan to Cheonan

My slender wife who would break down repeatedly with exhaustion, crying

Will die before me, and what's more, leave me

Woe! Can I imagine it even in a dream?

What to do I don't know. Heaven and earth are disappearing. I'm disappearing.

After wailing, tearing my hair out, I sit straight.

What good is the love letter filled with wailing?

If I lose even you as well as parents, I'm no longer in the world.

Without being, no name. Don't call my name any more.

Wife's death is husband's fault, and my fault is incurable.

The vain echoes with the grief of digging out my pupils

Woe, how can I expiate my deadly sin even in the afterlife in the future?

수의壽衣를 깁다

수의를 깁는 일, 나 죽어 입을 수의를 깁는 일, 붓으로 고요에 들어 수의를 깁는 일,

나, 추사의 수의는 붓이다

Sew a Shroud

To sew a shroud is

To sew a shroud for my body after death

With a brush

In a serene mind

To sew a shroud

Aa brush is Chusa's shroud

바다 울음

는 감고 바다 울음이나 보라 시화詩書라 제주바다 밤 파도만 살아 안개 늪 채색하고 죽음 들이마시며 철썩거리는 해안가 울음이나 보라 무용한 시여, 글이여, 몽당붓이여 파도 스러지면 보라 허망한 삶, 는 감고 바다 울음이나 보라

Tears of the Sea

Just see the weeping sea with your eyes closed

Like poem and picture

Only night waves of Jeju sea keep alive,

Painting the swamp of the sea fog,

Breathing in death, just see the tears crashing onto the beach.

Useless Poems, Writing, Stubby Brush

See when waves calm

Futile life

Just see the weeping sea with your eyes closed

제주바다

겨울 제주바다 밤 파도 출렁이다 아내 가고 나 이제 깨달았음이니 땅에 묻히는 그 순간까지 나, 다른 이성을 멀리하마 고요히 적요寂寥에 들어 붓과 더불어 여생을 마치되 치열하게 정신의 풀무 불 용암을 분출하며 줄기차게 죽음, 나는 이미 죽었음을 기우뚱대는 나 스스로에 나직이, 그러나 강하게 말하마 내 몸에 부서지는 제주 밤하늘에 부디 이 한 말씀만을 꼭꼭 새겨두길 빌며 내 생명 거둘 붓 잡으리라 나여. 쓸쓸하나 고요한 생명 파도여

Jeju Sea

The waves are rolling on the winter night sea of Jeju.

Only after wife passed away did I realize

As long as I live, I will keep away from women.

In tranquility

Living fiercely with a brush

I will erupt into fire lavas, soul's bellow constantly

Death, that I died already

I will say to myself, being confused, in a low but a firm voice.

On the Jeju night sky that breaks against me

Praying to engrave this word

I will hold a brush until I die

I, solitary yet calm waves of life.

世中と 世白 世白 な論 辞

한여름철 그렇게도 무성하던 한해살이풀 서리서리 넌출 뻗어 메마른 땅바닥 다 덮어버린다 상강霜降 지나 온 몸 불붙은 단풍심지 사루며 추수 끝난 황량한 들판에 무서리 울자 잠시 잠깐인가 한순간의 꿈을 사루며 시들어가고 있다 격하게 따지며 세운 핏대 어디 쑤셔 박혀있나 맨살, 제풀에 드러난 맨살이 썩자 한여름철 무성하던 한해살이풀도 사라지다

^{*}백파논쟁:백파(白坡, 1767~1852) 백파스님은 23세 때 지리산 영원사 설파(1707~1791)스님을 찾아가 스승에게 구족계를 받아 율종의 계맥을 이어 가며 50세 때 〈선문수경〉을 지어 당시 불교계에 일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때에 이에 맞서 반박 논리를 펴신 분은 해남 대홍사의 일지암에 초의선사다. 이 논쟁의 와중에 초의선사의 절친한 벗이자 해동의 유마거사로 불교의 박식함이 칭송되고 있던 추사 김정희가 끼어들어 백파스님과 한판의 불꽃 튀는 논쟁을 벌이게 된다.

A Debate with Packpa

The annual grass that was so thick in midsummer
Ran rampant all over dry ground with rambling vines.
After 'Sanggang', the wick of autumn foliage on fire burned,
The first frost cried on the field after harvest.
Thereupon, it is fading away, burning a transient dream
Where are the veins popping out of the neck, having a heated dispute?
Bare skin. exposed by itself, the bare skin decays, and then
The annual grass so thick during that midsummer also disappears.

^{*}Sanggang: the 18th of the 24 seasonal divisions (around 23 Oct.)

벗, 초의선사 대정에 오다

비생비사非生非死의 상태 넋이야 있는지 없는지 언제 해 저물고 날 밝는지 눈 멀거니 뜨고 왼종일 정좌하고 있는 방에 돌연 초의선사가 오다 꿈인가, 바다 건너와 바라춤에서 눈물의 생솔가지 꺼내어 뚝뚝 꺾어 지피는 군불에 넋 잃은 추사 일으켜 재생하는 불사佛事의 영생

^{*} 초의선사의 제주도 방문 : 아내를 잃고 시름에 겨워할 무렵, 일지암에서 초의선사가 추시를 찾아 왔다. 조그만 누옥에서 초의와 추사는 반년을 동고동락하다가 초의는 다시 일지암으로 돌아갔다. 현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Friend Choui Seonsa Drops by in Daejeong

Neither dead nor alive

Wandering mind

Unaware of the passage of time

Staring vacantly

Into the room where he sits up straight all day

Choui Seonsa comes abruptly

Is it a dream? Cross the sea!

Taking out fresh cut pine twigs in tears from bara dance

Breaking them with snap to heat the room,

Chusa, mesmerized, comes to himself

Eternal reviving nirvana

화암사의 무량수각과 시경루 현판을 말하다

삼국시대 사찰로 살아오는 예산 화암사 수덕사 말사 이력으로 쇠락하여 겨우 풍신만 보존하던 몸통에

추사의 증조부, 월성위가 중건하면서 손수 써 걸은 편액을 회고하며 추사가 회갑을 맞는 해우년인 병오년에 충청우도 불심 불 지르며 제주도 유배지에서 추사의 불심이 손수 써내려간 화암사 본당의 무량수각无量壽間과 요사채 정자에 걸을 시경루詩境雙의 광채를 마시라 들이마시라

훗날 추사 팔뚝에 박혀 망팔望八에도 활활 타오르는 보광寶光

* 병오년 : 1846년 추사 61세의 일이다.

* 팔망望八: 팔십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71살의 추사를 말하고 있다.

Signboards of Hwaamsa Muryangsugak and Sigyeongnu

Yesan Hwaam temple built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Up to Sudeoksa's branch temple after then,

Fell into a decline. After reconstructing the decaying temple,

His great-grandfather Wolsungwee hung a signboard written by himself on it. Recalling this, Chusa himself wrote a signboards for yosachae gazebo as well as Hwaamsa Muryangsugakl in Buddha's mind during his exile in Jeju on the 60th birthday in 1846, inflaming Chungcheong residents' devotion to Buddhism, Breathe in their brilliance, Inhale deeply,

Later, stuck in his forearm

Blazing light again, aged 71

추사 꿈에 받은 밥상

몸져누워 있을 때에 만나 간병을 해줄 때 황홀하였다 몹시 황홀하였으나 바람이 거센 데다 한편으론 바람이 너무나 은밀하여 연분홍빛 해녀콩인가 추사 밥상에 놓인 수저 두 벌 그럴 때면 으레 살아 있는 예안이씨가 상머리에 앉다

^{*}해녀콩 : 덩굴성 식물로 콩과이며 꽃은 6~8월에 분홍색 꽃이 피며 열매는 갈색으로 익는 제주도 자생식물이다.

A Meal Given in a Dream

When sick in bed
I was in ecstasies over being cared
So enraptured
The wind blows hard yet so secretly
Like pinky beach jack-beans
Two sets of spoons and chopsticks on Chusa's table
When they are on it, as usual, Yean Lee,
Alive, sits at the table,

단 한 벌뿐인 먹물 옷 걸쳐 입고 유난히 크게 우는 갈 까마귀소리 벗하네 뿌리내리지 못한 비알들이 몸거래하다 누워 있는 비탈길 내 땅이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궁궐 부럽지 않은 내 집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내 붓들과 내 화선지, 책과 나의 정원, 삼십 수 명의 노비가 어디 있단 말인가 매서운 칼끝에 심장 찔려 붉은 가슴 해당화마저 고사한 지 오래 땅끝에서 다시 바다 건너 땅끝으로 쫓겨 제주바다 흘러들어 온 나는 이미 시체, 그래도 염주 굴리며 한 살림 꾸릴 심산이니 흰 눈발이여 내 몸 덮어 하얗게 가려주게 눈물에 피투성이 몸 좀 받아주게

The End of the Earth

Wearing my only suit dyed with ink

I have the crow crying exceptionally loud for companions

A road where the slopes that didn't take root, selling themselves, lie.

Where on earth is my land?

Where is my house that is every bit as good as a palace?

My brushes, my rice paper, my books and my garden,

Where are thirty or so slaves?

The heart is stabbed at the point of a sword

Sweetbriers with red heart withered a while ago

Expelled from one end of the earth to another end of the earth across the sea

Into the sea of Jeju, I am already a corpse.

Yet, fingering Buddhist rosary, I mean to set up a home. White Snow,

Please cover my body in white.

Please accept my bloody body in tears.

빛을 꺼내다

제주 섬에 사는 민초들과 어울리면서 민초가 된 추시는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몽당붓으로 자신의 긴장된 심호흡을 자신의 정수리에 들이붓곤 하였다 생과 죽음의 경계라는 것은 실상 무정물無關이 무적霧笛이라 중국의 한나라와 위나라의 필체를 모본으로 온갖 서체를 형성해 나가던 추사 붓끝이 드디어 이승의 강변을 뚫고 나와 새로운 조선국 하늘 강물로 흘렀으니 세인은 이를 일러 추사체라 하였으나 누가 알랴 추사의 추사체 및 세한도를 비롯한 무수한 작품들은 모두가 빛이었고 추사는 제주섬의 고독과 병고 속에서 부단히 정진하여 단지 그 빛을 꺼낸 것인 줄을…… 빛이 빛을 잉태하여 출생시킨 것을…… 빛이 빛으로 사는 탄생을……

^{*} 추사체 : 추사는 제주도 유배지에서 추사체를 정립하였다. 이를 일러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는 "대 가들의 장점을 모아서 스스로 일가를 이루게 되니 신이 오는 듯, 기가 오는 듯하며 바다의 조수가 밀려오는 듯하다."라고 평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추사체를 일러, "해서, 전서, 예서에 있어 서 참다운 경지를 신기하게 깨달았다."라고 썼다. 결국 추사의 서예세계는 괴経나 기奇 또는 험정險 絕이라 표현할 수 있다. 추사체의 기절奇絕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분이다. 추사 서예의 기초 는 초당의 해서이며 거기에 서한西漢(진시황의 진나라를 멸하고 유방이 세운 제국)의 예練를 융합하고 왕희지·안진경 등 명가의 세계를 접목시켜 독창적인 서예서계를 창조한 것이다.

Take Out Light

Hanging out with the commoners living on Jeju island, Chusa behaved without self-consciousness like a commoner and would pour strained deep breaths over the top of his head with a stubby brush. Just as a matter of life and death is the piping sound that formless fog makes, so Chusa tried various writing styles based on Han's and Wei's penmanship. Finally, his brush point came through the stream of his life to flow into the sky ocean of new Joseon, which was called Chusachae. Who knew? Chusa's all works such as Chusa Style and Sehando were light and he could take it out after making a ceaseless effort in solitude and illness on Jeju Island······ Light creates light····· The creation where light lives as light·····

세하도歳寒圖

번갯불이 한지를 가르다 평생 붓 칼을 찾아 글 사막 유랑한 불의 나그네

*세한도 : 추사에게는 무수한 제자들이 있었다. 이들 제자 중 특히 후일 온양군수를 지낸 역관 우선 瀬船 이상적李尚迪(1804~1865)을 꼽을 수 있다. 세한도歲寒圖는 이상적으로 인하여 그려졌다. 이상적 은 청나라에 12번을 왕래하면서 교우한 청나라 문인들이 12권의 이상적 문집을 발간해 주기도 했 다. 조선에서는 중인 신분이라 문집 발간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스승 추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각별하여 청나라 역대 유학경전을 엮은 한 수레 분량의 황청경해皇靑經解를 구해다 주는가 하면, 특 히 제주도 유배 시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첫나라에서 발간된 '황조경세문편' 등등의 각종 신간 서적 들을 구해다 주기도 하고 지성으로 추사를 섬겼다. 이에 대한 고마움이 뼈에 사무친 추사가 제주 의 황량한 들판에 눈물을 뿌리며 그린 그림이 세한도인 것이다. 즉 세한도는 단순히 그림을 넘어 인가세상의 풋파에 흐듴리지 않는 인가섯정에 대한 창미의 그림 시이다 1844년, 추사가 59세 때 의 여름철이었다. 이 무렵 그는 절친한 친구인 안동김씨 김유근의 도움을 내심 기대했겠지만 그도 갑자기 타계하여 낙심천만이었다. 또한 세한도를 그리기 2년 전에는 추사의 사랑하는 아내 예안 이씨도 타계했다. 유배생활 어언 9년여. 황량하고 고독한 가운데 제자 이상적의 충심이 너무도 고 마웠던 것이다. 세한도는 서화 자체의 순수한 조형미보다 그 제작 과정에 깃들인 추사의 처연한 심경과 제자에 대한 애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즉, 세한도는 그림과 글씨에서 문자향과 서권기 를 강조하던 추사의 예술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추사 일생일대의 명작이다. 세한도는 현재. 국보 제180호로 지정되어 있다.

Sehando

The lightning cuts across rice paper

A fire traveler who roamed about the writing desert to find a brush knife

머무르고 싶은 곳, 태허太虛

끝내 허공에 깊이 묻힌 이후의 일들이다 봄 아지랑이 나풀대는 숫처녀 붉은 양 볼에 두근거리는 가슴이 나도 모르게 그만 나를 던져버리고 황망히 가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그 여름의 타는 갈증, 검푸른 파도 꽃술로 해갈하며 분노 삭이지 못해 찾아온 묘지의 회한이 해조음에 부서지던 일몰 이후의 밤 나라에 출렁이다 발목에 채인 족쇄 풀어 던지고 고향 우물가 타래박에 떠먹는 샘물나라로 가서 온갖 오욕 안은 채 그리로 가서 끝끝내 상처에 묻을 내 혼을 버릴 일이다

Great Void, the Place I Want to Stay

After all, it happened after I was buried deep in the air

Seeing at a virgin's red cheeks fluttering spring haze

My heart was suddenly beating unawares.

Throwing myself, I went in a flurry.

The burning thirst of that summer when I could not drink even a sip of water

Appeasing the black waves with pistils

The remorse of the grave coming out of the rage.

Breaking to the sound of the sea waves, rolls in the night land after sunset.

Remove the shackles around the ankles.

Go to the spring water land of hometown where water is drawn with a bucket.

Go there with all sorts of disgrace and

I should throw my soul away that will end up being buried in the wound.

모슬포 밤 파도에게

가상의 기억 속에 나를 가두지 말거라 실사구시가 아닌 공허한 논리의 틀 안에 가두지 말거라 후인들이 나를 일러 좋은 말로 공연히 추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추사를 아는 사람도 없다. 따위의 현학적이고 도식적인 이 고약한 말을 그런 말 듣거든 크게 한 번 웃고 긍휼히 여겨라 전설의 인물로 나를 각색치 말거라 죽음, 그 이상의 통증을 안고 살아온 작은 노인 제주, 이 황랑한 모슬포와 울며 밤 지새운 병든 노인 가솔들 얼굴 씻어버릴 바닷바람 속에서 천애 고아로 뒹구는 움막의 어둠을 마시며 포부와 희망조차 상실하고 죽음의 드센 파도에 숨어버리는 노인 검은 해수 포말들. 밤 파도라 여겨라 지나간 나의 이력을 따져 무엇하리오 나의 흔적을 남겨 무엇하리오 가상의 세계를 탐닉하다가 추사체 하나 남긴 걸 들어 가상으로 나름 새롭게 꾸며놓지 말거라

^{*}모슬포: 모슬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어항으로 모슬포 축항樂환이라고도 한다. 1971년 12월 21일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추사의 유배지로 모슬포 바닷바람을 추사는 '독풍'이라 불렀다.

To Night Waves of Port Moseulpo

Don't confine me in virtual memories

Don't confine in the frame of vain theory, not practical learning.

If someone in the future says nicely in vain for me

'Everyone knows Chusa, but no one knows Chusa'

Such a pedantic and figurative remark

If you hear, just laugh out loud and feel pity for it.

Don't make me a fictionalized legendary figure.

Death. A little old man having lived in pain more than death

Jeju. A sick old man having cried with that desolate Mosulpo at night

In the sea wind that washed his family's faces away

Breathing in the darkness of the hut where he moved around as a lonely orphan,

An old man who hid himself from the rough waves of death with his aspiration and hope lost

Black Sea Foams, consider me as a night wave.

What good is it to discuss my past history?

What is the use of leaving my traces?

Due to Chusachae I created while indulged in a virtual world

Don't idealize my life virtually.

백파대율사 비문

뚝 떨어져 나가다 추위에 달달 떨다 동상 걸려 썩은 발가락 뼈 뭉치 뭉뜽그려 피눈물에 뭉뜽그려 재회의 꿈을 저승길 다시 만날 걸 떨며, 떨면서 새겨가는 심비心碑

^{*}완당은 백파스님의 비문을 쓰면서 종래의 비문 형식을 다 버리고 비의 앞면에는 비의 이름을 해서 체로 큰 글씨로 쓰고, 뒷면에는 그 비의 이름을 풀이하는 행서체 작은 글씨로 채웠다. 비의 글씨체는 앞면은 거개가 통상 전서로 쓰지만 백파대율사비문은 해서체로 썼고, 뒷면은 보통 해서체로 쓰지만 그와는 반대로 행서체로 썼다. 이것은 비문을 쓰는 방식의 파격이다. 그리하여 이 글씨는 임종을 앞둔 추사가 쓴 최고의 걸작품이자 종래의 비문 글씨와는 상반되는 해서, 행서체의 금석문이다.

Baekpayulsa Stele

Snap

Tremble with cold

Rotten toes from frostbite

Lumping all bones together

In the lump with bloody tears

Hoping to meet again

In the underworld

Trembling, trembling all over

The stele being carved in mind

이상적, 거푸 대정에 책들을 보내오다

캄캄하다 두 손을 들어 두 눈을 누르다 눈물에 지친 눈두덩이 내는 어둠의 질량이 삶을 잃어버리다 저절로 상투는 풀어 흐트러지고 심신은 상실에 직면해 있는 순간, 너는 나의 우주로구나 이 멀고 먼 제주를 몇 번째 찾아와 준 너의 순수하고 꾸준한 정성이 나를 깨워 해맑게 나의 아미를 감싸다 오랫동안 횃불을 싸고돌던 불나방들이 하나 둘 하늘의 가장자리에 날고 나무들이 달무리 은하길 건너 걸어오는 자정에 내 고백하다 너는 나의 의원이자 나의 자랑 나의 믿음 우선藥에이여, 나는 너를 보며 내 의식을 날선 칼로 베어 다시 시작하다 나는 다시 나의 배움의 길과 명상과 나를 써가는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세로 다시 시작하련다 적막 가운데 묵언 속에서 세상일들이 사라지고 세상사람들이 모두 떠나가도 내 옆 자리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는 네가 보내온 서책들에서 너를 조석으로 만난다 제자 우선, 송백松세의 굳은 절개와 기개를 지닌 용맹스런 나의 부싯돌이자 나의 힘 나의 의원 나의 자랑 나의 위안나의 소망 나의 미소 나의 분기 나의 도전 나의 응시 나의 벗 나의 믿음인 우선, 너는 나의 꿈이다

^{*} 우선輔船 이상적季6迪: 호는 우선. 역관을 지낸 집안 출신이다. 벼슬은 온양군수를 거쳐 지중추부 사에 이르렀다. 역관의 신분으로 청나라에 12번이나 다녀왔으며, 그곳 문인들과 교류하고 명성을 얻어 1847년 중국에서 시집을 펴내기도 했으며 지극정성으로 추사를 공궤하였다.

Lee Sangjeok, Send Books Successively for Chusa in Daejeong

It is dark and I press the eves with fingers. The mass of darkness that the tired eyes in tears make loses its life. On the point of losing mind and body with my topknot untied, oh, you are my universe. Your innocent and constant sincerity in which you visited me in Jeju far away several times wakes me up and embraces my evebrows brightly. At midnight when the fire moths that had danced around a torch for a long time were flying in the corner of the sky and the trees walk to come across the milky way, I confess. You are my herbal doctor, my pride, and my trust, Wuseon. Staring at you, I start again, cutting my consciousness with a sharp knife. I will go back to the basics and start learning, mediation, and calligraphy to write myself in tranquility, keeping silent. Even though all of things are gone, and all the people around me leave, you will stay with and take care of me. In the mornings and evenings, I meet you through the books you sent. My Pupil Wuseon, with unwavering integrity and spirit of the white pine, you are my flint, my energy, my herbal doctor, my pride, my comfort, my wish, my smile, my vitality, my challenge, my stare, my friend, and my trust. Wuseon, you are my dream.

추사의 장서, 깨어나다

사월 미루나무 이파리에 개구리 울음인가 꼬리 길어지는 올챙이들이 앞 다퉈 꼬리치다가 수천수만의 몸들이 내는 몸짓에 한양에서 오는 책 수레가 조심스레 오고 간다한 바퀴 한 바퀴가 모두 필생의 일들, 살아 숨 한 번, 몸짓 한 번, 한 번이 모두 작두날 길, 도처에 은폐되어 있는 수렁 건너 조선 제일의 장서가藏書家 추사의 서가는 훗날 주인인 추사가 팔뚝에 불심지 꽂을 걸 알다신암천을 건너와 소실燒失될 운명을 알다 끝내 화염 속으로 사라져간 책들도 연초록 이파리 키우는 사월에는 깨어나다

^{*}추사는 조선조 최대의 장서가였다. 그러나 추사의 예산 추사고택이 화재로 전소되고 이때에 수만 권의 추사 서책이 한 권 남김없이 모두 불에 소실되었다. 이도 모자라 추사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 이 쓴 수많은 글들을 모두 불 질렀다.

Chusa's Library Wakes Up

Are they the croaks of a frog sitting on a poplar leaf?

The tadpoles vibrate their long tails, scrambling

At the gesture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tadpoles

The baggage cart from Hanyang comes carefully

Every turn of the wheel is his lifework

Every breath and gesture is the path to the edge of a cutter

Across hidden bogs everywhere.

Chusa's library that has the most books in Joseon

Foreknows that its master will put the burning wick in the forearm later on,

Foreknows that the books coming cross Sinamcheon are destined to be destroyed by fire.

The books that finally disappear into flames

Wake up in April when pale green leaves sprout

작오 緩傲

이 말은 추사가 스스로에게 주는 말이다 '…… 잠오, 나를 풀어놓지 말지라……' 결코 풀어놓지 말라 철저하게 가두라 초립 쓰고 구멍 난 베잠방이에 공허의 허공 쓸며 먼 바다 아득한 지경에 머물라 착각이 아니다 스스로를 경계하라 흉골 타개는 밤물결이 스산한 밑창에서부터 밀려온다

원래 존재치 않았으므로 무존재다 원래 무존재였으므로 나는, 나는 세상에 없다 고요에 파묻혀 스스로 고요에 침잠하는 검은 물결이 낮달을 지워가다가 오래 세워두어 혼자 늙는 지팡이에 내려앉는다

갈 곳이 없다 누굴 만날 일도 없다 그러나,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나를 풀어놓지 말라 나를 풀어놓지 말지라

^{*} 잠오藏職 : 추사가 남겨놓은 세 편의 잠箴가운데 하나가 잠오(기독교의 잠언)이다. 추사는 "…… 비록 누군가 말을 심하게 하여도 너는 스스로를 풀어주지 말렷다."라면서 자신을 경계하는 말로 이 '잠오'를 썼다.

The Maxim of Chusa

This is Chusa's word to himself

'..... Remember, don't let myself loose'

Never ease up. Tighten myself firmly.

Wearing a straw hat and the knee-breeches with a hole,

Sweep the void in the air and stay far away in the sea

It's not an illusion. Guard yourself.

The night waves to open the breastbone come up from the bleak abyss.

I am nothing because I've never existed.

I am not in the world because I was originally nothing.

Buried in silence, I withdraw myself into silence.

The black waves washing the day moon off

Sit down on the cane that is getting old, since standing for a long time.

There is no place to go. There is no one to meet.

But nevertheless, anywhere

Don't let myself loose. Never let myself loose.

추사의 마지막 작품

흥흥한 제주바다를 새벽바람 굽이쳐 도는 격한 파도 다시 함경도 북청고을 강추위 떨더니 진흙탕 습한 골목 밟고 비로소 가시울타리 에돌아 목숨거두고서야 향리예산에 이르러 안식에 든 한 노인

최고 좋은 반찬이란 두부나 오이와 생강과 나물(大烹豆腐瓜薑菜) 최고 훌륭한 모임이란 부부와 아들딸과 손자(高會夫妻兒女孫)라 곁에 가까이 있으나 잘 느끼지 못하는 손길의 보배로움을 깨우쳐주는 주련 볏밥 떠넘기며 유택幽宅 골방에 켜진 무음無音의 등촉 따라 일흔 한해의 생애 뒤따라온 세한솔 표피에 점철된 혈흔에 박혀 늘 새로웠고 치열했던 발자취 빛나라

고택 기둥마다 박혀 숨 쉬는 저승도 요요히 빛나 신암 구렁목에 영면하는 추사의 숨결, 혼결 들려라

^{*}大烹豆腐瓜薑菜, 高會夫妻兒女孫: 추사의 마지막 글씨이다.

^{*}주련: 기둥이나 벽 따위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글씨

Chusa's Last Work

Suffering violent waves that wind up the desolate Jeju sea at dawn

Then, shivering with severe cold in Bukcheong, Hamgyeongdo,

Treading on the damp and muddy alley, and finally making a detour around the thorn fence

The old man rests in peace in his hometown after dying

The best side dish is tofu, cucumber, ginger, and herbs.

The best gathering is with a couple, son and daughter, a grandchild,

Which he was unaware of well, despite being near him.

After passing paste that reminds of the hands of a treasure for a hanging scroll on a pillar,

Following silent lamplight in the small grave

Sehan's pine shows the life of 71 years, whose bark is studded with blood stains. May traces of new and intense lives all the time shine.

The afterlife stuck in each pillars also shines clearly, breathing

May the breath of Chusa who rests in peace in Sinam Gooreungmok increase much more!

^{*}Sehan: it means bitter cold weather in Chusa's painting 'Sehando'

용궁리 백송

소나무인데 왜 온 몸이 희냐고? 온 몸이 새하얗게 커 가는 거냐고?

고희에 이르도록 아내 먼저 보내고 고향 땅에서 임종 못한 늙은이가 기억에 둘 만한 게 뭐 있겠느냐만, 나는 단 하나 꿈을 가졌단 말이다 조선 최초로 백송을 내 품에서 꺼내 내가 심어 키운 그 백송처럼 순백의 가슴을 흠모한다는 말이다 백송 흰 뼈들 기슴 가슴에 퍼져 나 유골로나마 고향에 누웠다만 내 심혼은 온전히 새하얗다는 말이다

삶 이상의 삶인 내 모가지보다 핏줄기 맑은 용궁리 백송이란 말이다

^{*}용궁리 백송: 추사가 청의 연경에서 돌아올 때 붓대 속에 종자를 숨겨 가지고 와 증조부의 묘 앞에 심은 백송이 있다. 수령 200여 년의 천연기념물 106호이다.

Yongungri White Pine

Do you want to know why the pine bark is white?

Do you want to know whether it keeps growing white?

After his wife passed away first, aged seventy,
An old man who is still alive in his hometown.
For him, is there anything memorable? Yet, only one
Dream I have

A white pine taken out in my chest first in Joseon As if it was a white pine I planted and grew

The white heart I adore.

As the white pine bones are scattered deep in my heart Though, as ashes, I lie in my hometown.

My heart and soul are completely white.

Than my neck's, life more than life Yonggungri white pine with clearer blood

추사 오솔길

추사 묘소에 절 올리고 묵묵히 이 길을 걷다 예산 그 어디에 계실까 죄 아닌 죄를 뒤집어쓰고 조선의 세도 흙탕물이 전신을 어지럽혔어도 응혼, 섬농, 고고, 청기의 빼어난 학예, 결국 깨우침으로 화광 선명하나 한없이 겸허한 추사가 아침이슬에 오롯이 이 길을 걷는다. 나도 동행하면서 걷는다.

제주 유배길 가며 떼어낸 현판을 구년여가 지나서야 오는 길에 다시 찾아 걸고 있는 사내, 조선 학예를 새로이 창업한 도도한 학예의 군주君主를 반갑게 만나

묘소 뒤편 사는 고요를 불러 셋이 걸어간다

^{*} 웅혼雄渾, 섬岑纖濃, 고고高古, 청기淸奇는 모두 문학사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시적 품격들이다. 추사는 이들을 중시하였다.

Chusa's Path

I walk along his path in silence after making a deep bow to Chusa's grave I wonder where he is. Taking the rap of the criminal,

Even if Joseon's political power in mud brought disgrace on him

He finally reached the level of sublime, lovely, holy, pure and mysterious literature and art,

Despite the bright light in him, humble Chusa in morning dew

Walks this path in a sharp outline, and I walk after him, too.

The man who hung it again on returning in nine years after removing the signboard on the way to be exiled to Jeju, meets gladly the lofty monarch who set up literature and art anew,

And calls quietude living behind the grave for three to walk.

지금도 떨다. 봉은사 판정版殿

면벽 수도한 지 구년 만에 벽壓이 된 달마여 떨림, 유배 구 년여 동안 붓 길을 궁구하였건만 어인 일이오 은은한 이 진동 한 편의 판전 앞에서 한없이 떨고 있다오 제주바다 폭풍 앞에서 담대하던 내가 북청고을 화피옥 추위를 견디며 언제 받을지 모르는 사약에도 꿋꿋하던 내가 반일정좌半日靜坐하며 평생 붓에 매달려 살아온 내가 기껏해야 딱 두 글자 판전, 이 벼랑에 떨며 붓을 못 잡는다오 판전, 한 획을 치는 일이 유배지 생활 십년보다 더 떨려 겨우 쓰는 건 노쇠한 사내의 통곡 한 움큼 나는 누구란 말이오. 면벽구년을 펼친 달마여

* 판전: 함경도 북청 해배 이후 추사는 과천에 머무르면서 당시 봉은사 주지 영기스님의 부탁으로 1856년 10월에 이 글씨를 썼다. 줄곧 달마조사를 부정하던 추사도 팔망(71세)에 이른 이쯤해서는 달마와 화의하여 소통하였을 성싶어 굳이 달마를 시편에 넣었다. 이 판전이 추사의 절필絕筆이다.

^{*} 반일정좌半日靜坐: 중국 역사에서 정죄靜坐와 정양靜養은 학문의 필수과정으로 여겨왔다. 추사는 이를 원용하여 제주도 유배시절부터 매일 반일정좌를 하였다. 마음을 모아 육체와 영혼, 나의 모든 것이 우주 속으로 스미어 영혼을 다스리는 길이 곧 정좌라고 보았으며 이는 추사의 생활철학이었다.

The Signboard of Bongeunsa Hall Still Trembles

Dharma, who has become a wall in nine years after sitting in meditation facing the wall

Trembling, even though I have investigated the brush of life throughly for nine years in exile

Uh-huh, what's happened? The soft vibration like this

I'm endlessly trembling in front of a signboard.

I, who was bold in front of the Jeju sea storm

Enduring the cold of Bukcheong's shabby cottage

I, who was unperturbed even in the condition that I could drink poison any time by the king's order

I, who have stuck to brush, sitting in meditation half a day in my life

At most, only two characters

Signboard, I can't get a brush, trembling on this cliff.

Signboard, to draw one stroke

Makes me tremble more than ten years in exile

Barely used is the wretched handful of an old man

Who am I? Dharma who overcame sitting in Zen meditation of nine years

아들 상우에게

네가 이 글을 읽걸랑 그저 마당가 조약돌이라 여겨라 소나기로 여겨도 무방하다 애끓음의 순간들이 잠시 뱉어낸 짧은 단말마일 뿐, 가슴 산 뒤덮는 새벽안개의 흩날림이나 길가 민들레를 아비라 기억하라 일찍이 학예를 일으켰으나 통재痛哉라. 가문을 살피지 못한 통한을 천추에 남기었으니 내 고단한 심사를 읽어라 너는 일평생 외출을 삼가라 스스로 고요를 즐겨 명상에 들라 세상에 살되 세상을 잊어라 혹여 고독한 밤이 오면 이 아비가 살고 있는 유택에 굽이도는 밤물결 읽어라

To Son Sangwoo

If you read this letter

Just consider it as a pebble in the garden, or

Or a shower.

It is only short death throes

My heartbreaking moments spit. Covering heart mountain

Consider scattering fog in the early morning,

Or the dandelion on the road as your dad.

In the early age, I established literature and art, yet

Alas, sadly, that I didn't look after my family,

I forever regret.

Feel my weary mood.

Abstain from going out during your life.

Enjoy yourself in tranquility and meditation.

Forget the world, though living in the world.

Sometimes, at lonely night

Over my grave that I reside

See the night waves surging

무덤의 생애

허리 굽은 소나무에서 늙은이가 걸어오고 있다 애기먼동의 여름에 제주에서 온 세한도가 삼복더위인데도 뉴 덮인 겨울 용산을 몰고 온다

쓰디쓴 음식과 독충들 성화에 쫓기면서 언제 사약 들고 금부도사가 내려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단 하루라도 등성이 뻐근하지 않게 잠든 밤 없다

평생 예산 구렁목 고샅을 바라보는 꿈, 죽어서야 그 꿈 이뤄 귀향한 뼈마디에 쭉쭉 뻗어 오른 두 갈래 하늘에 걸린 허기진 표피가 생생하게 무릎 꿇어 허위허위 내려오는 저승길 눈보라여

때로 유택에 몸 쉬는 북청 칼바람도 목숨보다 질긴 늙은이의 단잠을 깨우는가, 불타오르기를 멈추지 않은 영혼의 묵음點속 듣다

The Life of the Dead

From the knotty crooked pine tree, an old man is walking.

At one summer dawn, Sehando coming from Jeju

Is driving Yongsan covered with snow even in midsummer heat,

Pestered by bitter foods and poisonous insects,
Full of anxiety that an official brings him poison anytime
Every night, he couldn't sleep, feeling his back stiff.

His dream of seeing the narrow alley of Yesan Gooreungmok forever.

Only after his dying did the dream come true and sprawled among his bones coming back home, sprawling

The hungry bark hanging on the forked sky is clear.

Underworld blizzard which comes down, staggering, kneeling down

Sometimes Bukcheong biting wind resting on a grave,
Wakes an old man sleeping soundly who is more tenacious than a life
Hears that eternal flaming soul recites a poem in silence

유택 세한송歲寒松

푸르딩딩한 눈알 까고 사철 사는 저것은 제주도, 그 뜨거운 대지의 빛, 여름 제주도 밤바다가 어두컴컴한 가시울타리에서 그린 애모.

평생 그리워한 어머니 손길이 세한도에서 걸어와 여기 신암 고향집 툇마루에 닿으려 쉬지 않고 애달피 제 창자 끊어 땡볕, 칠월땡볕 속에 제 뼈를 갉아 뼈 세우는 저것은

저승길 밝히는 새 영혼의 봉홧불인가?

^{*}유택 세한송歲寒松: 현재 충남 예산의 추사 고택 옆에 자리한 추사 선생의 묘소 앞에 서 있는 소나무.

A Pine Tree by a Grave in the Biting Cold

Living with dull green eyeballs open all year round
Light of the hot land Jejudo
The affection that its summer night sea craves in a darkish thorn fence.

The mother's touch he longed for all his life
Walks from Sehando to go the hometown toenmaru
On and on, cutting its own intestines. Scorching sun
Gnawing its own bones to set up a bone in July scorching sun

Is that the signal fire of new soul that lights the journey to the afterlife?

예산문화원 발간 도서목록

- 050 추사여, 겨레의 혼불이여 2(한글, 영문)
- 049 예산의 소리
- 048 충청남도 예산말 사전 3
- 047 충청도말 이야기
- 046 역주 정일현 시집
- 045 추사여 겨레의 혼불이여 1(한글, 영문)
- 044 일연실기
- 043 묵향의 본향에서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를 만나다
- 04 조선 4대 명필 자암 김구의 생애와 문학 및 철학적 의의
- 040 예산의 문화산수화 2
- 039 충청남도 예산 방언 사전 2
- 038 우리가 몰랐던 예산문화유산 이야기
- 037 일제하에서 문예광의 표정
- 036 충청남도 예산 방언 사전 1
- 035 예산 임존성
- 034 예산의 문화산수화 1
- 033 예산의 인물
- 032 예산군 강역변천사 연구
- 031 대흥 임존성 연구
- 030 염정문화
- 029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서예백일장 수상작품 도록
- 028 예산의 인물 증보
- 027 예산의 풍물 증보
- 026 예산의 실학
- 025 회암서원 창건록
- 024 동학원 발원
- 023 일제강점기의 예산지역사
- 022 전통혼례증보
- 021 예산군 선사유적지표조사 보고서
- 020 춘암 박인호 선생
- 019 예산의 문화유적도
- 018 예산의 민요
- 017 추사 김정희 선생 실기
- 016 맥인지상득
- 015 내포제 시조 정악보
- 014 천방산 아랫마을 이야기
- 013 갈신리 산신제
- 012 예산 백제 사면석불의 고찰
- 이 호서은행의 설립과 그 운영의 의지
- 010 일제시대 각종 신문 예산관련 기사 모음집
- 009 추사 김정희 선생 연구
- 008 자랑스런 예산군 문화유산
- 007 예산지방의 풍물
- 006 예산의 인물
 - 005 내고장이 낳은 인물 춘암 박인호 연구
- 004 예산군 향토민속축제 발전방안
- 003 예산의 지명유래
- 002 전통혼례
- 001 갈신리장승제

2016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추사여, 겨레의 혼불이여

CHUSA, Soul of the People

이번 「추사여 겨레의 혼불이여」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해동통유라 일컫게 된 학문과 예술의 업적을 토대로 신익선 선생님의 신고의 필력으로 시화 되었습니다. 추사 선생님의 모든 것을 두 권의 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추사의 단면만이라도 세계인들과 공감해 보자는 것이 이번 발간사업의 취지이기에 시적인 표현의 특성상 다소 함축적이고, 동양의 시적 감성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감수성 전달이 다소 약하더라도 추사의 사상과 예술성의 맥락은 분명히 전달되리라 봅니다.

- 예산문화원장 공학박사 김시운



ISBN 979-11-959886-1-7 〈비매품〉